

YUHAN

NOW

VOL
7

#SyncON

#YUHAN싱크존

#YUHAN플리

#YU:리부트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

LINC^{3.0}
LINC 3.0
Leading Innovation Center
3.0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2.0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 선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사업 선정

경기도
라이즈(RISE)사업
선정



유한대학교
YUHAN UNIVERSITY

YUHAN NOW

2025 Vol. 07

「YUHAN NOW」는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유한대.ESG활동

#몽골에서도
ESG



YU:NIVERSE

- 04 YU터뷰 유한학원 최상후 이사장 인터뷰
- 08 유한 어록 갓생 어록, 나를 움직이는 한 문장
- 10 오늘의 플리 유한감성 플레이리스트
- 12 GO그린프로젝트 GO GREEN! 유한대가 간다!
- 16 YU: 라인 유한대학교 조동근 이사 인터뷰

@유한대버들대동제

유한나우 2025 Vol.07

발행일 2025년 8월 20일 통권 제7호

발행인 장은영

편집인 봉다룬

발행처 유한대학교 미디어홍보센터

제 작 유니크플러스 02-2140-1114

#댕댕이랑
야외실습



YU:TURN

- 18 YU: 히트 유한대 신설학과 FLEX! 경험으로 배우는 전공 실습기
- 22 유한 셀럽 박아인 교수와 제자들의 리얼토크!
- 26 요즘 전공 zip 치과 인플루언서 백지실장이 알려주는 2026학년도 신설학과 치위생과
- 28 All about 유한 유한 라이프, 유한 스타일!
- 30 YU한JOB담 실무 현장에서 빛나는 유한 DNA!
- 34 YU: 루트 글로벌 전공직무연수, 진짜 Global한 YUHAN SPIRIT!

#축제여신
권은비



YU:LINK

- 42 히터스팟 유한대 힐링스팟 모음 zip
- 46 캠퍼스 스타 유한PICK 콘텐츠!
- 48 YU: 로그 글로벌 체험 로그, 세상을 무대로 경험을 확장하다
- 52 Festagram Are you ready? 이틀간의 Yuhan ON 라이브쇼!
- 56 YU: 톡톡 세상과 연결되는 유한의 이야기
- 59 유한 선택 2026학년도 유한대학교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안내

여러분의 가능성, ‘유한’이라는 이름으로 꽃피우기를

유한학원 최상후 이사장

Let Your Potential Bloom Under the Name of Yuhan

Choi Sang-hoo, Chairman of the Board, Yuhan Foundation

‘유한’의 리더에서 유한학원을 이끄는 교육자로

●●● 이사장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법인 유한학원 이사장 최상후입니다. 유한양행에 입사해 유한메디카, 유한화학, 유한양행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47년간 ‘유한인’으로 살아왔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유한학원 이사장으로서 유일한 박사님의 건학이념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인생의 나침반, 유한정신

●●● 평생 유한과 함께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켜온 철학이 궁금합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말씀은 제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 철학, “국민이 건강해야 잃었던 국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애국애족 정신은 늘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 정직한 기업 운영,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대통령 표창, 봉황 대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지만, 제게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얻은 신뢰였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교육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그룹의 변화를 이끈 비결

●●● 오랜 경력 중에서 특히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유한양행 공장장 시절, 군포공장의 노후 제조설비를 청주 오창공장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K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충족하기 위해 원료 입고부터 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수천 개의 설비 이전과 해외 장비 도입·설치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뛰며 작은 부분 하나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결국 사람과 함께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경험은 이후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략을 세우거나 글로벌 수준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변화의 해답은 결국 사람과 현장에 있습니다.”

“No matter how good a system may be,
the answer to change ultimately lies in people and the front lines.”

From a long-time business leader to an educator

●●● Chairman Choi,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I am Choi Sang-hoo, Chairman of the Board of Yuhan Foundation. I have lived as a devoted member of Yuhan for 47 years, beginning my career at Yuhan Corporation and later serving as CEO of Yuhan Medica, Yuhan Chemical, and Yuhan Corporation. Since February 2025, I have been leading Yuhan Foundation as Chairman, putting into practice Dr. Ilhan New's founding philosophy in the field of education. My mission is to help students grow into the protagonists of their own lives and become leaders of the future.

The Yuhan Spirit, My Lifelong Compass

●●● You have dedicated your entire career to Yuhan. What philosophy has guided your journey?

Dr. Ilhan New's words have been my lifelong guide: profits should be returned to the society that nurtured the company, and national health is key to regaining sovereignty. This belief shaped a leadership focused on people, integrity, and community growth. Awards such as the Presidential Citation and Best CEO were meaningful, but trust earned along the way matters more. Today, that spirit continues through education.

The Key to Driving Change in a Global Group

●●● Was there a turning point that shaped your career?

As plant manager at Yuhan Corporation, I led a major project to relocate outdated facilities from the Gunpo plant to the Ochang plant. Meeting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standards required redesigning the entire process, from raw material intake to packaging and shipment. Overseeing thousands of equipment moves and overseas machinery installations, I was on-site, checking every detail. That experience confirmed my belief that even the best systems succeed only when people work together. It also proved invaluable in shaping my management strategies and establishing global-standard production systems as CEO.

“

신뢰와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Trust and respect begin with actions, not words.



성공의 본질은 성실한 과정

●●● 많은 학생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성공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요?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하루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제 성장의 힘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을 움직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리듬과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성실함이야말로 자기 삶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입니다.

학생이 웃는 학교, 사람이 성장하는 대학

●●●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교육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임 후 첫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100% 이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전인적이면서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식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를 함께 기르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유한대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가 대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품질과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만드는 신뢰

●●●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신뢰와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듣고, 필요를 함께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이 바로 학교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The Essence of Success Lies in Diligence

●●● Many students dream of achieving success. What do you believe is the key principle of success?

I value the process over the result. Starting the day a little earlier, organizing materials, and developing the habit of recording and taking notes have been the driving forces behind my growth. Grand goals are fine, but it is the small, daily actions that truly move life forward. I encourage students to establish their own rhythm and routine, and to keep them consistently. Diligence is the true engine that propels one's life.

A University Where Students Smile and People Grow

●●● Since assuming the role of Chairman, what has been your primary educational goal?

At my first board meeting, I stated, “Responsibility rests 100% with the Chairman, and I will communicate constantly to fulfill it.” My goal is to nurture well-rounded, practical talent—fostering not only knowledge but also the right mindset and attitude. I aim to enhance the quality and environment of education so that Yuhan University and Yuhan Technical High School are recognized as top-tier institu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uilding Trust Through Actions

●●● We understand you make it a point to attend every school event. Could you share why?

People are at the heart of education. Trust and respect begin with actions, not words. It is important to see the situation firsthand, listen to voices, and identify needs together. I never miss moments where students and faculty gather, because I believe those moments help solidify the school.

배움은 세상과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

●●● 재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 깃든 캠퍼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일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자기 성찰과 몰입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만의 성공을 넘어 세상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진 것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유한대학교는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늘 함께 있겠습니다.

미래의 유한인을 기다리며

●●● 마지막으로, 예비 입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한대학교는 인성과 창의성, 사회적 책임을 함께 키우는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의 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세상에 펼치고자 한다면 유한대학교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Learning to Share with the World

●●● What mess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current students?

You are spend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times of your life on a campus imbued with the spirit of Dr. Ilhan New. Please remember two things. First, keep in mind the 10,000-hour rule: set clear goals, engage in self-reflection, and dedicate yourself fully to push beyond your limits. Second, go beyond personal success and become someone who shares with the world. True leadership is demonstrated through action and practice. Yuhan believes in your limitless potential and possibilities, and Yuhan University will always be by your side on your journey of growth.

Awaiting the Future Leaders of Yu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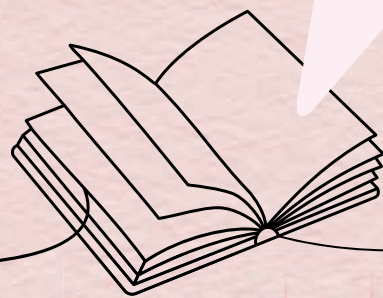
●●● Lastly,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prospective students?

Yuhan University is committed to holistic education that fosters character, creativ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those with the will to learn, we are ready to discover your potential and open the path to growth. If you are determined to learn, grow, and share your unique value with the world, Yuhan University will be the best choice for you.



갓생 어록, 나를 움직이는 한 문장

유한인들이 삶 속에서 되새기는 '내 문장'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때론 위로가 되어준 한 문장.
친구의 말, 부모님의 조언, 영화나 드라마 속 대사,
포춘쿠키의 운세까지!
지금, 유한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어록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도 있는 법이다."

피너츠의 '스누피 명언' 시리즈 중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이 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해줬어요.



항공서비스학과 김권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영화 '노랑'에서 인용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대사에요.
지금은 그냥 멋있어서 좋아하지만, 언젠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제 바람이기도 해요.



카페배아커전공 허성욱

"아무도 당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믿고, 더 사랑해주세요."

가족 모임에서 받은 포춘쿠키 문구인데, 그 한 줄이 저를 위로했어요. 그 후로 저를 더 잘 돌보게 됐어요.



항공서비스학과 조아현

"실패는 없다!"

예능에서 들은 말인데, 그 순간 뭔가 확 와닿았어요.
이 문장 덕분에 망설이기보다 도전하게 돼요.



항공재무비ой전공 박찬종

"나는 나랑 제일 잘 지내고 싶거든요.
과잉으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지나치게 학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드라마 '런온'에서 들은 말인데, 정말 저 같았어요.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방송콘텐츠창작전공 최하영

"좋아서, 너무 좋아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온 말이에요. 들었을 때 울컥했어요.
내가 뭔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반려동물산업전공 심선진



유한감성 플레이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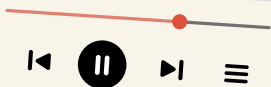
요즘 뭐 들어?!

유한인의 하루를 때로는 강렬한 에너지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감싸안아 주는 플레이리스트,
이유는 달라도 감성은 통하는 요즘 유한감성 플리!

정예림♥



Rain Drop
Shyboiitobii

비 오는 날의 리듬

Shyboiitobii의 'Rain Drop'을 좋아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릴 때 들으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는 감정들이 있어요.
제 인생 노래는 찾는 중이에요.

김태인★



Without Me
Eminem




기억을 건드리는 멜로디

감성이 폭발할 때는
Eminem의 'Without Me'를 들어요.
공부할 때는 피아노 연주가 집중을 도와주고,
인생 노래는 조광일의 'Korea(한국)'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이 있어요.
유한대학교에 어울리는 노래는
Anne-Marie의 '2002'!

김시연♥



Rewrite the Stars
Zac Efron, Zendaya




별처럼 조용히 곁에 있는 노래

Zac Efron과 Zendaya가 함께 부른 'Rewrite the Stars'는
저에게 늘 곁에 있는 곡이에요. 캠퍼스를 걷다가 문득 이어폰을 꽂을 때,
하루를 정리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음악이죠.
그래서 제 인생 노래도 같은 곡이에요. 그냥, 늘 함께 있었으니까요.

김수아♥



애국가




음악보다 강한 마음의 멜로디

평소엔 노래를 자주 듣진 않지만, '티엘스'처럼 신나는 곡은
친구들과 함께일 때 떠올라요.
그리고 제 인생곡은 '애국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가끔은 음악보다 더 강한 울림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억과 바다가 머무는 곳

강릉 바다에서 들었던
허각의 '바다'는
특별한 기억이 담긴 곡이에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은
유한대학교의
캠퍼스 분위기랑 어울려요.
인생 노래는
창모의 '빌었어'예요.

박지원★



바다
허각

2 o'clock
Dori





캠퍼스에 어울리는 그 순간의 음악

자주 듣는 곡은 Dori의 '2 o'clock'.
어쩌다 플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 올 때마다 듣고 있어요.
Aimee Carty의
'2 days into College'는
진짜 신입생을 위한 노래 같아요.
인생 노래는 재쓰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감정의 밑바닥을 다정하게
건드리는 노래예요.

주진영♥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




사랑이 뭔지, 노래가 말해주는 순간

요즘 자주 듣는 곡은 밀리맥스의 'Zombie'예요.
반복되는 비트 속에서 하루의 리듬을 찾곤 하죠.
감성적으로 몰입하고 싶을 땐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을 들어요.

GO GREEN! 유한대가 간다!

@몽골

유한대와 함께하는 ESG 발자국

나무를 심고, 거리를 걷고, 컵을 다시 쓰는 일상.
유한대학교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자원 순환과 지역 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교육안으로 끌어들이 '행동하는 배움'을 실현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움직이며,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고 있다.
교육은 앞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유한대학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삶 속에 녹여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변화의 현장을 지금부터 따라가 본다.



유한 ESG - "유한대학교는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故 유일한 박사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MONGOLIA
GOBI DESERT
Ulaanbaatar
Kumul

유한대, 몽골 토진나르스에 가다!

유한김벌리 ESG 경영 실천에 함께한 여정

작년 가을, 유한대학교 학생들은 몽골의 대지 위에 '실천'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심었다.
유한김벌리, 사단법인 평화의 숲과 함께 떠난 3박 4일간의 ESG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서
유한대 학생 8명은 몽골 토진나르스 숲에서 직접 나무를 심고, 테를지 국립공원 일대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도 나섰다.
기후 변화로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몽골의 초원에서 학생들은 사막화를 막는 손길이 되었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으며 지구와의 연결을 재확인했다.
유한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4월에도 유한김벌리, 생명의숲, 산림청, 동해시와 함께
강원도 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유한김벌리, 유한양행 등 유한 패밀리 기업들과 함께 ESG 공동 선언을 진행하며,
캠퍼스 안팎을 넘나드는 ESG 교육과 실천을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



CO₂



캠퍼스컵크루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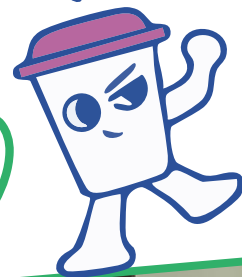
'음료는 즐기고, 컵은 다시!'

"ESG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카페에서 다회용 컵 한 번 쓰는 것, 그게 시작이죠." 유한대학교는 경기도가 주관한 '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 지구 조성 사업'에 참여해 2024년부터 '캠퍼스 컵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캠퍼스 내 1847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이 기본 제공되고, 다마신 컵은 학교 곳곳의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 학생들은 컵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모은 포인트는 친환경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캠퍼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ESG 실천이 이뤄지는 구조다.

또한 유한대학교는 이러한 생활형 ESG 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최근 리뉴얼 오픈한 복합문화공간 '뉴스퀘어(NEW SQUARE)'에서 다회용 컵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지난 3월 26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한 단순한 음료 프로모션을 넘어, 새롭게 바뀐 뉴스퀘어에 학생들을 초대하는 '친환경 입학식' 같은 의미로 기능했다. 유한대학교는 대학이 지역 사회와 손잡고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시작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실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회용컵을 사용 후
QR반납수거함에
컵과 뚜껑을 반납하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반납수거함 위치

- 텀블러 세척기
- ▲ 음료수거함
- ★ 다회용컵 QR반납함(포인트 지급)
- 다회용컵 일반반납함(포인트 미지급)



CAMPUS
CUP



캠퍼스 밖까지 닿은 ESG 실천 유한대 플로깅 봉사활동

유한대학교가 진행한 이번 'ESG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가 아니었다. 유한 ESG 봉사단과 유한대 인근 항공 진로 고교 학생들, 지역 사회 구성원 등 약 150명이 함께한 이 프로젝트는 학내를 넘어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유한대학교의 ESG 문화 확산 사례였다. 참가자들은 생분해성 봉투와 장갑이 담긴 플로깅 키트를 받고, 유한대학교부터 역곡역까지 약 3km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석구석 환경정화를 펼쳤다. 캔과 페트병, 담배꽂초 등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은 학생들의 손길을 거쳐 300L의 수거량으로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도 철저하게 진행돼, 활동의 의미를 더욱 살렸다. 실제로 유한대학교는 캠퍼스 안팎에서 ESG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ESG 교과목 개설, 유일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등 교육·실천·철학을 잇는 실질적인 활동들이 그 증거다.

그 결실로 유한대학교는 2024년 'K-ESG 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조선일보 사회공헌대상' ESG 부문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With Yuhan ESG



들어는 봤니? 초록초록한 용어들?

초간단 Green 상식 사전

지금부터, 들어본 듯하지만 알쏭달쏭 제대로는 그 의미를 몰랐던 단어들을 찬찬히 짚어봅니다.

#ESG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 기업이나 조직이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요즘 기업 이미지도 이걸로 결정되는 시대!

#플로깅(Plogging) 달리기 + 쓰레기 줍기 = 플로깅! 스웨덴에서 시작된 친환경 운동으로, 운동하면서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 활동이에요. 유한대에서도 이 활동을 'GO그린 프로젝트' 속 미션으로 멋지게 실천 중이죠.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버리는 게 '0'에 가깝게!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모든 실천을 말해요.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리필스테이션(Refill Station) 샴푸나 세제 같은 제품 용기를 다시 사용해서 덜어가는 친환경 매장이예요. 요즘은 마트나 캠퍼스, 공공기관에서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

현장에서 증명한 배움의 가치

조동근

(주)청산카플링 대표이사
유한대학교 이사

☆ 유한대학교와의 첫 인연

Q1. 어떤 계기로 유한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엔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보다는 일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졌습니다. 마침 회사 근처에 유한대학교가 있었고, 야간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회사를 마치고 땀 흘리며 학교 정문까지 달려가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배움, 특히 공업경영학과와 수업들에서 배운 전문적 이론들과 실용 지식이 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때의 배움이 오늘의 저를 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 유한대학교 졸업 후, 기업인의 삶

Q2. 유한대학교에서의 배움이 창업과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기술을 배우고,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던 중 “내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을 하게 되었죠. 그때 유한대에서 배운 공업경영의 기초 지식이 큰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유한에서 배운 건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품질관리(QC), 설비관리, 생산계획 등 체계적인 수업 덕분에,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품질은 곧 회사의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키는 힘

Q3. 경영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결국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그릇이 커야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식도, 인맥도, 경험도 모두 결국은 자기 그릇에 따라 담기는 거니까요. 담아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 그릇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업하면서 위기도 많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자”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제겐 특전사에서 군 복무한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훈련이 삶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 현장, 유한대학교

Q4. 졸업생이자 이사로서 보는 유한대의 현재는 어떤가요?

무엇보다 유한대학교의 실습 중심 교육 인프라는 정말 훌륭합니다. 최근 학과 실습실을 둘러보면서 어느 학교에서도 보기 힘든 높은 퀄리티에 놀랐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과 최첨단 장비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에 적합한 강의실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현장감 있는 수업을 위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감동했던 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학교의 태도였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커리큘럼을 바꾸고, 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모습에서 학교의 진정성과 미래 지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기업 경영과 학교 운영의 시너지

Q5. 이사로서 바라본 유한대학교의 미래 방향은 무엇인가요?

기업 경영과 학교 운영은 분야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운영 철학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다소 경직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학교도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업이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하듯, 학교도 학생과 사회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사로 활동하면서 특히 느낀 것은, 학교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의 질, 실습 환경, 진로 연계,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학교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유한대학교가 ‘유한 출신’이라는 말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려면, 교수진 역시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맞춰 유연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학교의 접점을 살려, 유한대학교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전문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빛나는 젊음의 시간을 보내는 후배들에게

Q6.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대학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유한대학교 후배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며,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길 바랍니다. 친구는 결국 어떤 위기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을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일에 몰입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건강을 챙기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한대 신설학과 **FLEX!** 경험으로 배우는 전공 실습기

반려동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직업인 양성소

반려동물 산업전공

반려동물 야외훈련장



“실제 반려견과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현장감이 뛰어나 졸업 후 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훈련뿐 아니라 왜 이런 방식으로 훈련해야 하는지, 반려동물의 실제 반응을 보면서

심리를 함께 배울 수 있어 수업의 깊이가 달라요.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은 아마 없을 거요?”

반려견과 함께 뛰는 강의? 유한대에선 씹가능!

이 전공의 강점은 현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실습 환경이다. 교내 옥상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야외훈련장은 단순한 실습 공간을 넘어, 실제 반려동물 훈련소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성되었다. 허들, 터널, A프레임 등 어질리티 장비, 플라이볼 코스, 미끄럼 방지 바닥, 웰터형 강의 공간까지 갖춰져 있으며, 10여 마리의 반려견과 30명의 학생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체계적인 환경이다.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몰입형 실습 훈련의 콜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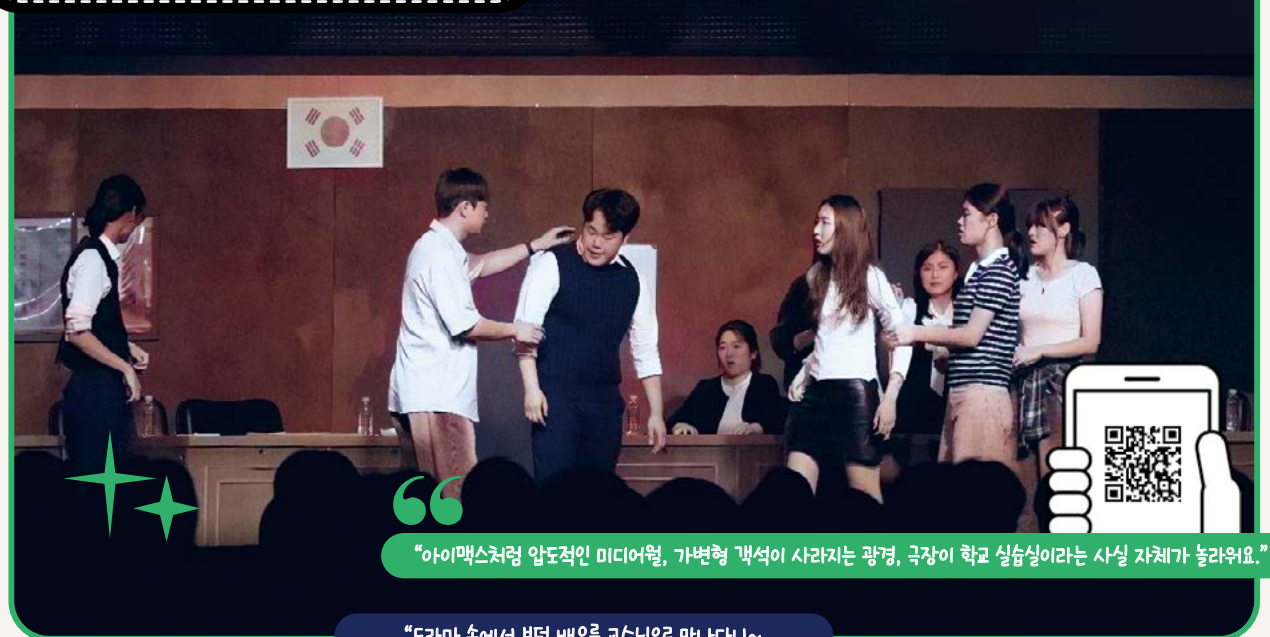
‘반려동물 훈련 기초 실습’과 ‘훈련 일반실습’을 통해 기본 복종 훈련과 사회화 교육, 문제행동 교정 기법을 배우고, ‘동물행동학 및 실습’을 통해 행동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독스포츠’에서는 어질리티, 플라이볼과 같은 활동성 높은 훈련을, ‘특수목적견 실습’에서는 경찰견, 도우미견, 치료견 훈련의 기초를 익힌다. ‘행동 교정 실습’에서는 짚음, 분리불안, 공격성 등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훈련 기법을 적용해 본다. 훈련 장비의 난이도가 다양하게 조절 가능해 기초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인 실습이 가능하고, 교수의 시연, 학생의 실습, 개별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계로 학습 몰입도를 높인다.

졸업 후 진로? 훈련사, 행동 교정사, 동물매개치료 전문가, 복지 코디네이터, 펫케어 전문가, 반려동물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상승 중!

예술과 기술이 공존하는 체험형 교육의 결정체

방송연예전공



“아이맥스처럼 압도적인 미디어월, 가변형 객석이 사라지는 광경, 극장이 학교 실습실이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워요.”

“드라마 속에서 보던 배우를 교수님으로 만나다니~

교수님께서 섭외하시는 현업 종사자들의 특강은 단연 최고예요.”

유한아트홀



유한아트홀: 이런 시설이 교내에 있다고?

총 285석 규모의 유한아트홀은 첨단 8K 미디어월, MA2 조명콘솔, 돌비 애트모스 음향 시스템, 전자동 무빙 조명 등은 단순한 무대 장비를 넘어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극장을 초월하는 스펙의 영상·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이 공간에서는 액팅테크닉, 즉흥연기, 연극 제작, 영상 제작 등 예술의 기초부터 실전 제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업이 진행되며 방송영상, 방송문예창작 전공과의 캡스톤디자인 협업 수업은 창작-연기-기술이 융합되는 실습 프로젝트로, 졸업 이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력을 키워준다.

가변형 블랙박스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교육이라니!

소극장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고 발성과 호흡을 훈련하는 기초 연기 훈련부터 캐릭터 분석과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내고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연기해 보는 고급 연기 훈련은 물론 배우, 감독, 드라마 작가 특강 및 오디션 실습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영상 제작 실습까지 이루어진다. 무대, 촬영장, 연습실, 콘서트장으로, 유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변형 블랙박스 소극장으로, 가변형 의자, 1인 방음 연습 부스, 프로필 촬영 스튜디오, 전동 배경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어, 오디션, 카메라 연기, 고급 심화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 공간은 특히 연기의 집중도와 표현력을 높이는 데 적합하며, 첨단 음향 시스템과 방음 구조 덕분에 학생들은 ‘몰입’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연기 연습에 집중할 수 있다.

오디션 팁부터 현장 노하우까지, 현업 바이브는 달라달라!

방송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현업에서 활약 중인 교수들이 직접 수업을 이끌며, 수시로 전문가들의 특강이 진행된다. 교수진의 생생한 경험은 수업과 공연 기획, 오디션 준비, 영상 제작 과정에 녹아들어, 학생들에게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을 제공한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 위기 대응 능력 훈련소

응급구조과

구급차 실습실



“조명, 장비 위치까지 병원과 똑같아요. 실제 환자 대응처럼 연습하니 실전이라 다름이 없어요.”



ACLS 실습실

“처음엔 강의실이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장비도 새것에 최첨단 기기라 조작이 쉬워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디에도 없었다: 최첨단 장비로 배우는 CPR

2025년 도입된 최신 시뮬레이터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응급환자 상태를 다양하게 재현하는 시뮬레이터 '애니', 정밀한 흉부 압박이 가능한 LUCAS3, 개별 피드백이 가능한 연동형 CPR 애니 30기 등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장비를 갖췄다. 학생들은 자신의 CPR 압박 깊이, 속도, 호흡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며 훈련받는다.

실습은 '실전처럼': 단계별 커리큘럼

BLS(기본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 학기 후반에는 심정지 환자 대응(ACLS), 내과 질환 응급 시나리오, 출혈성 쇼크·척추손상 등 외상 시뮬레이션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된 훈련이 이어진다. 약물 투여, 심전도 분석, 팀 CPR 등 실제 상황에 기반한 시나리오 훈련은 긴장감을 높이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습실이 곧 현장

응급구조과의 핵심은 실습실이다. 구급차 실습실, ACLS 실습실, 응급환자 관리 실습실은 마치 병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커튼이 설치된 병상, 벽면 모니터, 산소·흡인 라인,약품 캐비닛까지 실제 응급실의 구조를 그대로 구현했다. 실습실 내 동선, 커뮤니케이션, 환자 응대까지 '기술 + 상황 대응 능력'을 통합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다.

감성 서비스와 비상 대응의 이중 훈련,
진짜 승무원을 만드는 공간

항공서비스학과

항공 F&B 실습실



“실제 항공기 구조를 그대로 옮겨와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실습이 가능하더니 놀라웠어요.”

“각 클래스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방식까지 배울 수 있어

실제 취업 시험을 보거나 취업 후 서비스 응대를 할 때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내 실습실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구비

항공 F&B 실습실은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실습 공간 중앙에는 에어바 형태의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와인 및 주류, 식음료 서비스, 클래스별 차별화된 응대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라운지 운영, 퍼스트 클래스 맞춤 서비스 등의 실습을 통해 프리미엄 고객 응대에 필요한 디테일과 품격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세심하다 못해 감동적인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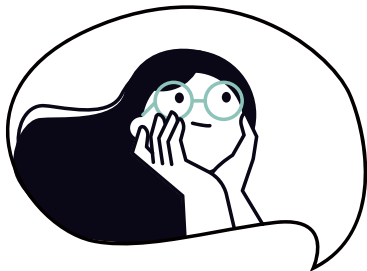
기내 실습실은 A330 기종의 실제 도어, 갤러리, 화장실, 안전 시연 장비 등을 포함해 항공기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실습실에서는 기내 방송, 안전 시연, 화재 진압 및 비상 상황 대응 훈련 등 항공 승무원의 핵심 업무 전반을 실제 상황처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도어 조작과 화재 시나리오 등은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훈련 요소로 작용하며, 실습 중심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한대 항공서비스학과는 이미지 메이킹 실습실까지 갖추어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한다. 퍼스널 컬러 진단, 메이크업, 헤어 및 스타일링 실습을 통해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공실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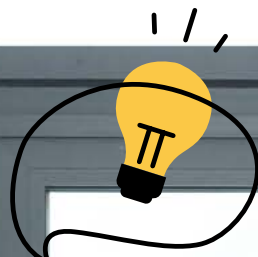
유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 항공기 내부를 정밀하게 구현한 전문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습실은 항공 F&B 실습실, 기내 실습실 A330, 이미지메이킹 실습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항공사 서비스 기준에 맞춰 만들어져 있다.

“배우는 사람을 사랑하는 직업”

박아인 교수와 제자들의 리얼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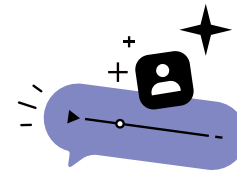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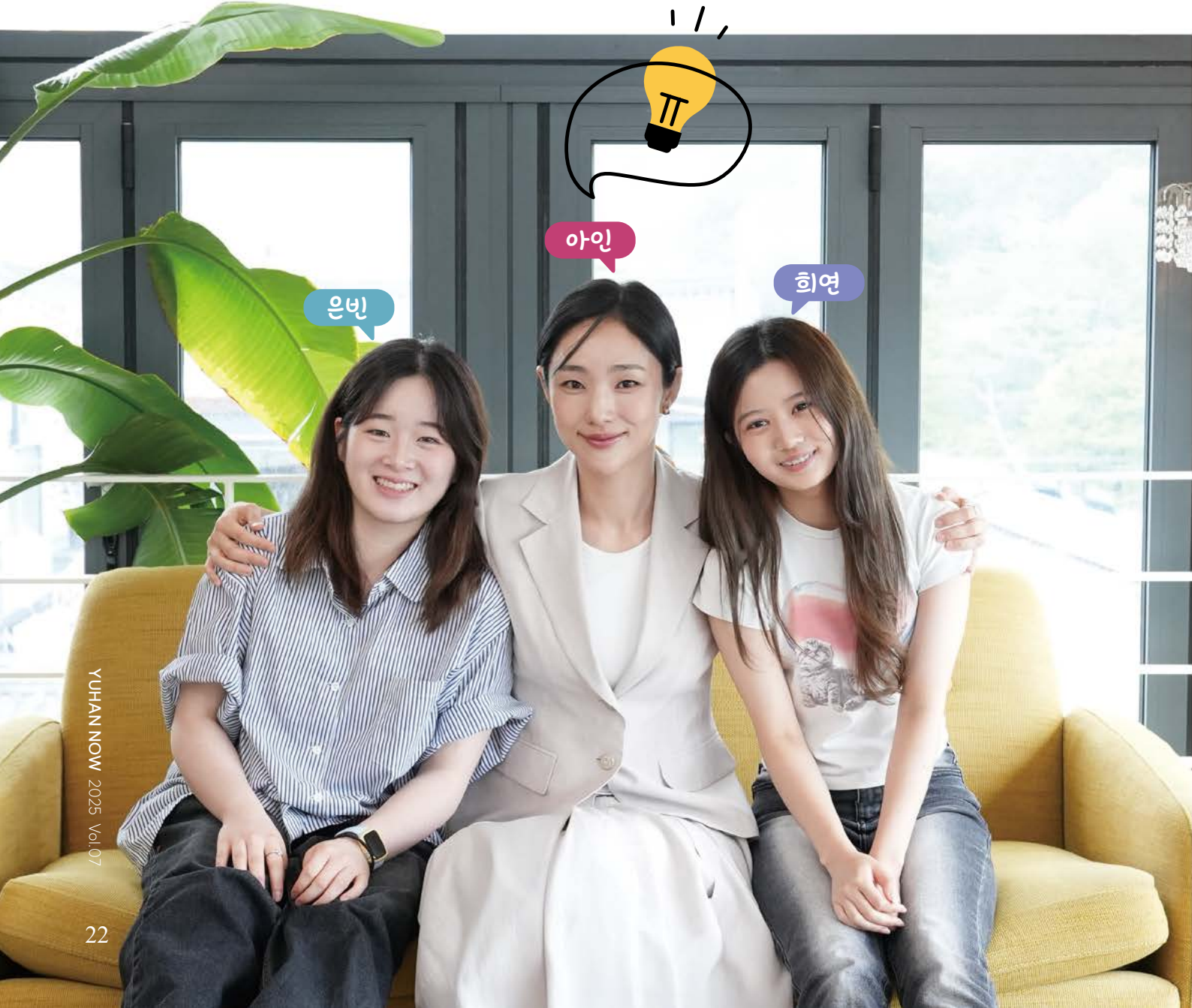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되었어요.” 유한대학교 방송연예과 수업 현장은 단순히 대본을 외우고 대사를 던지는 것을 넘어, ‘진짜 나’를 마주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현업에서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하는 전문가들이 소규모 대본 리딩을 틈틈이 지도하고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추며, 감정 표현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또한, 건강과 외모를 관리할 수 있는 헬린지와 팁 공유를 일상으로 하는 이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인

은빈

희연



특별한 교수진과 열정적인 학생들의 콜라보

Prof. 아인 타이트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특강, 7천보 챌린지 등 정말 다양한 수업과 활동들로 눈코 뜰 새 없는 한 학기를 보냈잖아. 은빈이랑 희연이는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느라 더 그랬을 것 같아. 그동안 가장 좋았던 순간 혹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니?

희연 저희 교수님 라인업이 정말 특별하잖아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수업하시는 점이 정말 신선했고, 1학년인데도 ‘젊은 연극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인상 깊었어요. 쉽게 뵈 수 없는 전문가분들의 특강도 정말 많았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은빈 저도 특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학교가 신설이다 보니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좋았고, MT도 재밌었어요. 나이, 학년 상관없이 어울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Prof. 아인 너희는 신설학과의 1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받은 사랑과 관심을 앞으로 들어올 2기, 3기 후배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

Prof. 아인 그럼 반대로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니?

희연 솔직히 말하면,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지쳤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질까 봐 항상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Prof. 아인 그럴 수 있어. 희연이는 비중 있는 역할에 기획부장, 집행부, 동아리장까지... 1학년인데도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냈잖아.

은빈 저는 크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 걸 보니 그럭저럭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웃음) 다만 과제랑 학생회 일이 시험기간에 몰릴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Prof. 아인 그래도 집행부였던 너희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전체가 잘 진행되었던 거야. 고생 많았어. 다만 1학년에 이 모든 실무를 경험해 본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힘들었던 만큼 너희 안에 남은 것들이 값지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야.

무대를 만든 손끝에서 피어난 변화

Prof. 아인 ‘젊은 연극제’에 참여해서 너희가 기획부터 무대 제작, 포스터와 브로셔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서 진행했잖아. 하나의 종합 예술 프로젝트로 진행한 작품, <12인의 성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공연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이나, 공연 전후로 ‘내가 달라졌구나’ 느낀 점이 있었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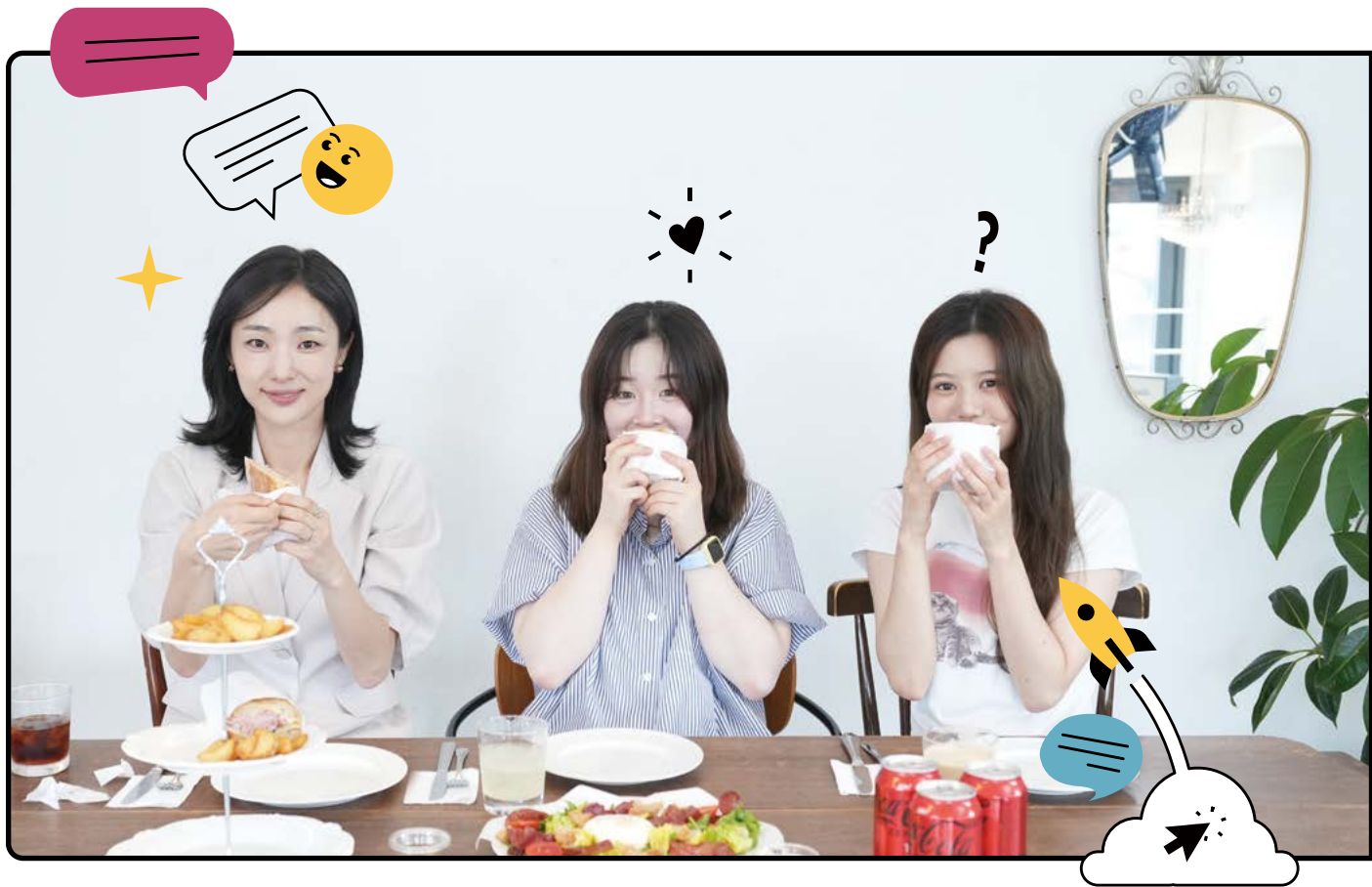


희연 저는 커튼콜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 줄 때 ‘아, 이래서 공연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았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건 기획이 처음이라서 부담도 있었고, 팸플릿이나 포스터도 처음 만드는 거라 조금 서툴렀던 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Prof. 아인 그 포스터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해. 이번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객 반응이었어. 웃고, 감탄하고, 반응을 바로바로 해주니까. 지역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배우들이 함께 하나의 공연을 만든다는 느낌이 참 좋았어. 은빈이는 어떤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았니?

은빈 저는 민석 오빠랑 상원이랑 제가 화내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은 제 감정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감정은 다른 배우들의 연기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쉬웠던 건, 상대 배우들과 더 많이 맞춰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상대의 반응에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Prof. 아인 맞아, 우리 두 달 동안 준비했지만 초반에는 자주 못 만났잖아.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더 다듬을 수 있었을 거야. 그래도 이번 기회가 정말 의미 있었고, 난 내내에도 젊은 연극제에 나가보고 싶어. 너희가 또 다른 무대에서 다시 설 수 있다면, 분명 더 멋진 경험이 될 거야.



무대 밖에서도 단단해지는 법

은빈 교수님, 평소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술인의 삶에서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자존감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교수님만의 루틴이나 팁이 있을까요?

Prof. 아인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실 나는 기초 연기 첫 수업부터 항상 자존감 이야기를 해왔거든. 우리가 말하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건, 결국 자존감이 단단하다는 뜻이니까.

그걸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나만의 루틴'을 갖는 거야. 일이 잘 안 풀려도, 남이 뭐라 해도, 나는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지. 그게 아주 작아도 돼. 매일 만 보 걷기, 일주일에 한 편 영화 보기. 우리가 지금 유한대에서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루틴이야.

은빈 맞아요. 서로 인증하면서 응원해 주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Prof. 아인 그렇지! 그렇게 쌓인 루틴이 결국엔 '준비된 나'를 만들어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칭찬해 주는 태도야. '나 오늘 이거 잘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

희연 그 말 듣고 나니까 저도 오늘 저 자신한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Prof. 아인 그거야, 바로 그게 너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지. 나는 유한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야. '자존감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 너희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나와 맞닿은 역할은 결국 내게 온다

희연 교수님도 배우 생활하시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시련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Prof. 아인 있었지. 아주 또렷이 기억나. 리딩까지 다 마쳤던 작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랑 상대역 배우 둘만 빠졌던 적이 있었어.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괴로워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

희연 와... 그럴 땐 정말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Prof. 아인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이 업계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도 없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나랑 운명처럼 맞는 역할이 찾아와. 잘 알려진 작품 중에 다른 배우가 리딩했던 역할을 내가 하게 된 적도 있거든.

은빈 그런 거 진짜 신기해요! 결국 올 역할은 오네요.

Prof. 아인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내게 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내 인연이 아니구나."

너희도 그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해. 분명 이번 무대 준비하면서도 작은 시련들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꼭 '실패'는 아니야. 늘 잘하던 친구가 주춤할 수도 있고, 늘 조용하던 친구가 반짝일 수도 있거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희연 이제 그런 일이 생겨도 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rof. 아인 그래. "이번엔 내 인연이 아니었구나", "내게 올 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넘기는 연습,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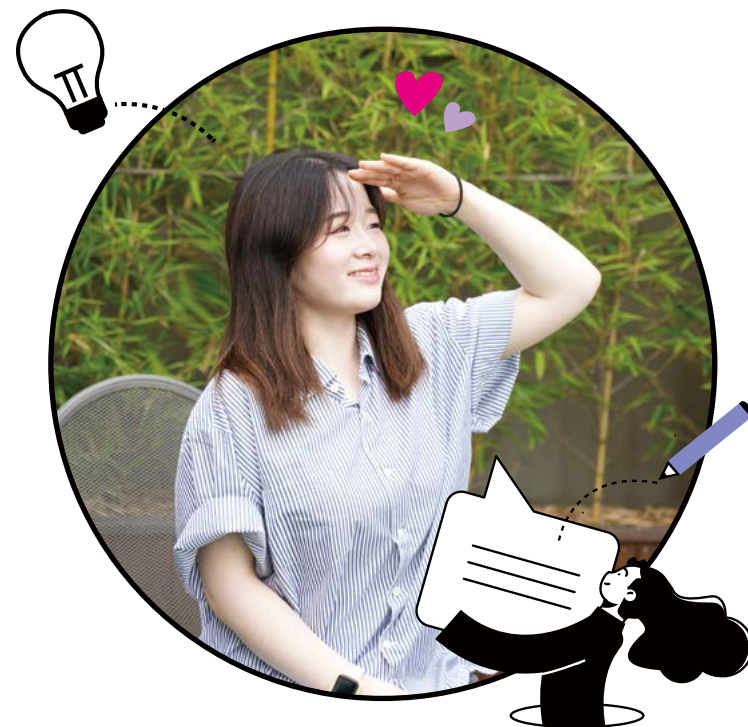
좋은 배우는 결국 '좋은 사람'

Prof. 아인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두 사람은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학기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궁금해.

은빈 저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연기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성이나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아쉬울 수 있잖아요.

Prof. 아인 정말 그래. 결국 무대 위에 나오는 것도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진실되게 느껴지고 호소력도 생기지. 그럼 희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희연 저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어떤 역할이 자기랑 잘 맞는지를 아는 것이 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오디션 볼 때 자신한테 어울리는 배역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Prof. 아인 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한 학기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그 생각이 깊이가 현업에 있는 배우들 못지 않다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다. 두 사람 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길.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방송연예 전공을 꿈꾼다면

은빈 교수님, 혹시 유한대학교 방송연예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Prof. 아인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어요. "예뻐야 할까요?" 전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하죠. '배우는 예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요. 외모보다 중요한 건 감정, 감성, 진심이에요. 예술과 연기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주저 없이 도전했으면 해요.

유한대학교는 실무 중심 수업을 표방해요. 방송, 드라마, 매체 연기를 꿈꾼다면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현직 감독님, 배우분들이 수업을 함께하니깐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죠. 아직 신설 학과이기도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많고, 지역적 접근성도 좋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 특별하죠.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맞춤형 접근을 하면서 아직 선배가 없지만, 교수들이 그 역할도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희연, 은빈같은 좋은 선배들이 리드해줄 거고요.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주는 역할이죠. 제가 함께 해줄 테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치과 인플루언서 뽀지실장이 알려주는

2026학년도 신설학과 유한대학교 치위생과



유한대 치위생과 취업률
100% 목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형 전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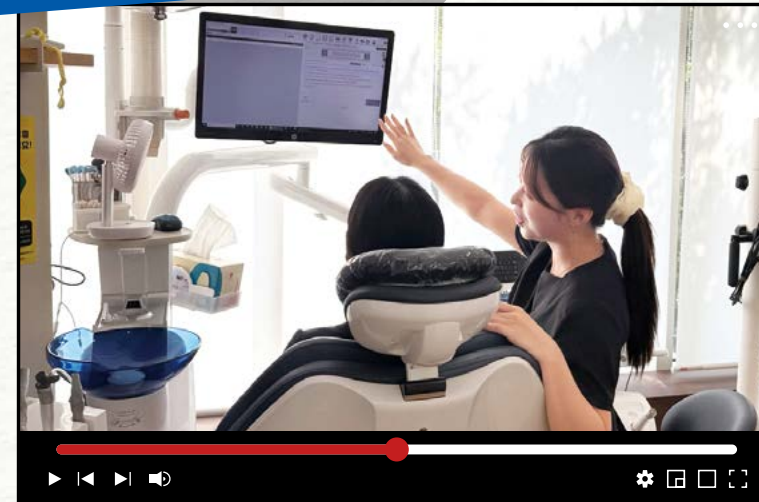
2026년, 유한대학교에 치위생과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치과 의료시장의 변화로,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질 전문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유한대 치위생과는 이런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최첨단 교육 환경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형 치과위생사를 길러낸다고 해요.
최신 실습 장비와 실제 임상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훈련,
그리고 산업체 전문가 강의와 맞춤형 취업 컨설팅까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요!
치과 인플루언서 뽀지실장의 이름을 걸고 강추! 드립니다.

유한대 치위생과만의 강점?

- 현장연계 실무 교육: 치위생학, 예방치의학, 치주질환학 등
전문 지식을 깊이 배우는 체계적 커리큘럼
- 다양한 자격증 취득: 국가자격증(치과위생사 면허)과
민간자격증(치과감염관리사, 병원 코디네이터 등)
- 평생지도교수제: 진로 상담부터 취업까지 1:1 밀착 지도
- 최첨단 실습 시설: 실제 치과와 동일한 환경에서의
실습 경험

졸업 후 진출 분야?

- 의료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보조, 환자 관리, 예방 교육
- 공공기관: 보건소 등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 교육
- 기업 및 연구소: 치과 장비·재료 회사, 구강용품 제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뽀지실장은 10년 넘게 치과위생사로 일한 후,
현재는 치위생사 본업뿐 아니라
관련 강의도 하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치위생사 콘텐츠로 '뽀지실장'이라는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다.



치과위생사라고 하면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실제로는 환자분과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치과위생사
예요. 진료 전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환자 옆에서 긴장을 풀어드리
고, 필요한 전문적인 설명도 드리며,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
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치석 제거, 잇몸 질환 관리, 구강보건
교육 등 환자의 구강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환
자분이 "선생님 덕분에 다시 왔어요"라고 말해주실 때, 정말 큰 보람
을 느껴요.

치과위생사의 진로는 진료실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어떤 다양한 경로가 있을까요?

맞아요! 치과위생사는 진료실 안에서만 머무는 직업이 아니예요. 강
사, 컨설턴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임플란트 회사, 구강위생용품 회
사, 심지어는 해외 취업까지!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어
요. 저도 지금은 강의도 하고, 치과위생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콘
텐츠도 제작하고 있어요.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
들 수 있는 직업이죠.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자기 계발도 가능한 워라
밸이 있는 좋은 직군입니다.

치과위생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오늘도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저는 매일 진료실에 서요. 치과위생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일이에요. 그
리고 이제, 유한대학교에도 치위생과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실용적
이고 전망 좋은 전공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시설과 커리큘럼을 갖
춘 유한대 치위생과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능성을 펼칠 멋진 베이스캠프가 되어줄 거라 믿
어요.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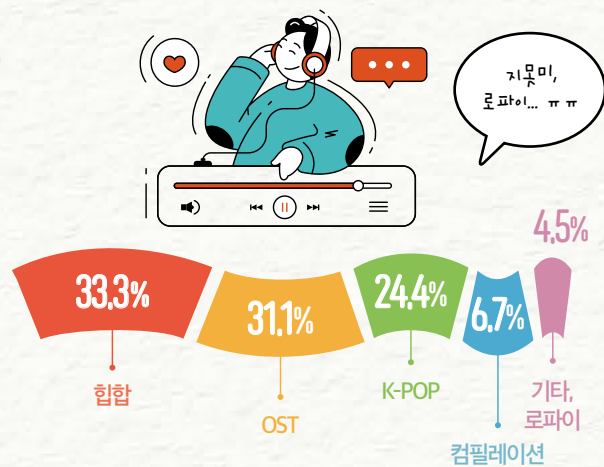


유한 라이프, 유한 스타일!

유한대학생들의 하루를 엿볼 수 있는 리얼 데이터!
무심코 귀에 꽂은 이어폰, 혼자 즐기는 식사,
강의 시간에 손이 가는 앱까지!
생활 습관부터 관심사, 진로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쾌하고 솔직한
캠퍼스 라이프를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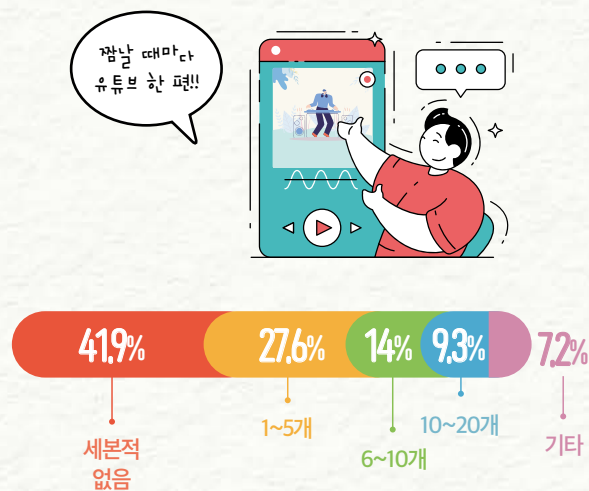
Q1

이어폰을 꽂는 순간, 내 세상이 시작된다
이어폰을 꽂았을 때 재생되는 음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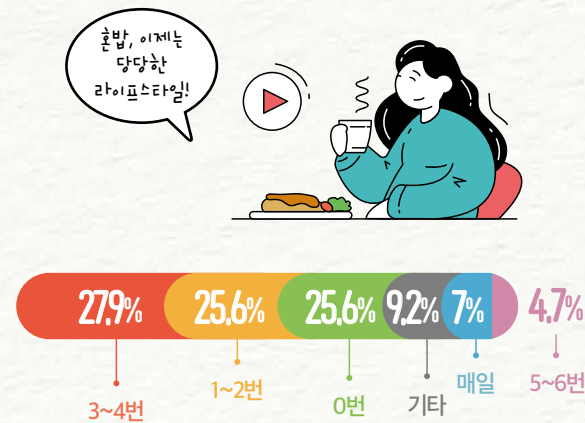
Q3

오늘, 유튜브 몇 편 봤니?
하루에 보는 유튜브 영상 개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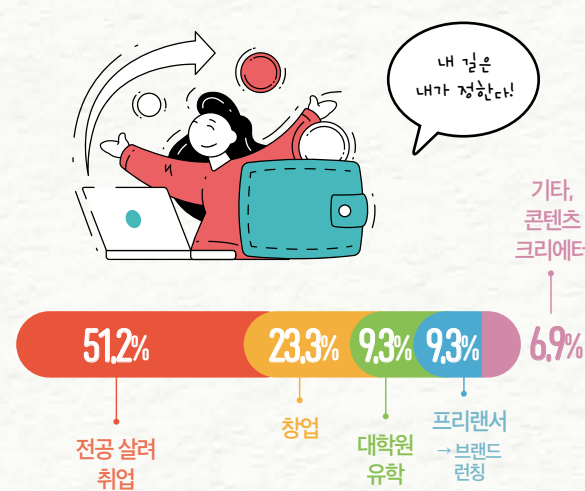
Q2

자발적 아싸! 혼자 먹는 밥은 트렌드!
최근 1주일 간 혼밥 횟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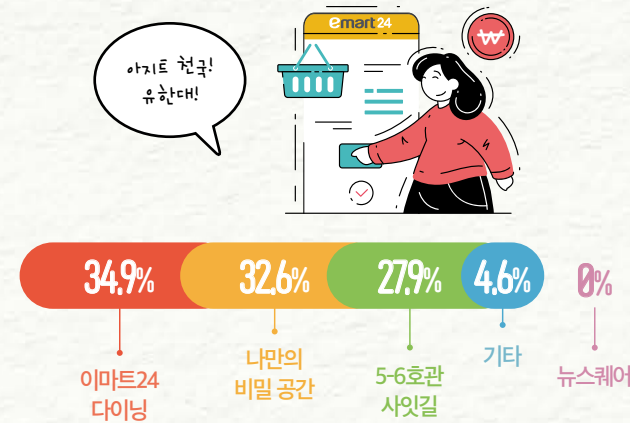
Q4

졸업 후 진로는?
졸업 후 나의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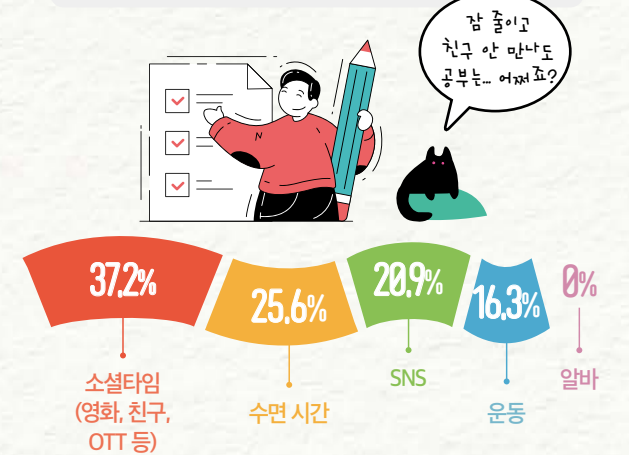
Q5

유한대 캠퍼스, 당신의 아지트는?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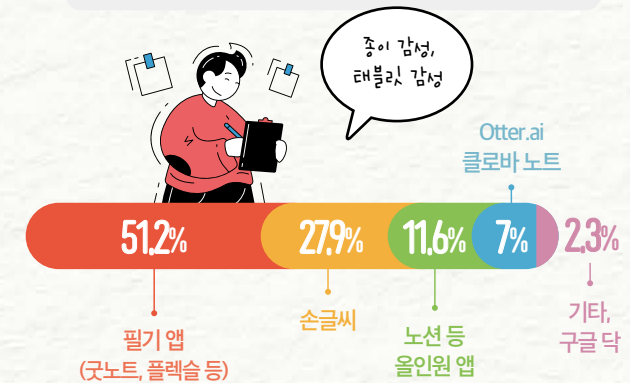
Q6

시험에, 양보하세요!
시험 기간에 가장 먼저 즐기는 일상 루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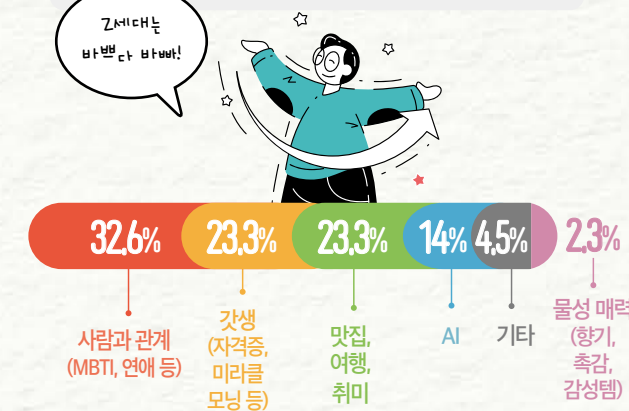
Q7

강의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앱은?
강의 시간 중 활용하는 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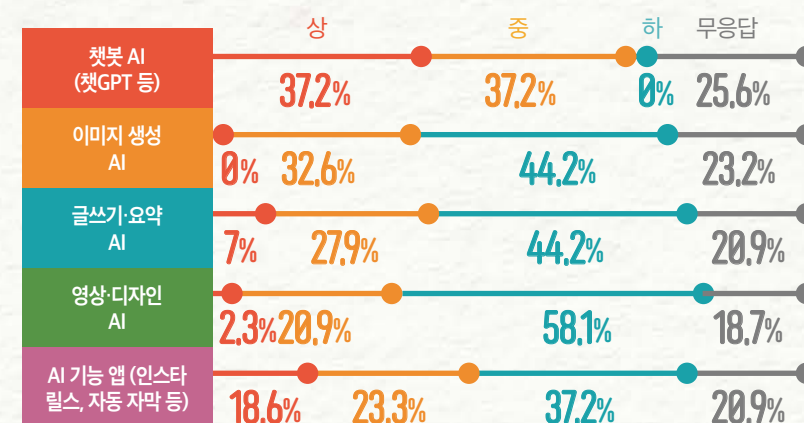
Q8

요즘 나를 사로잡은 키워드는?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Q9

내가 자주 쓰는 AI와 숙련도는?
AI 유형별 활용도 (상/중/하 비율)



실무 현장에서 빛나는 유한 DNA!

'유한'이라는 이름이 주는 감동

100년의 가치를 전하는 유한인으로 성장 중

현재 유한양행 홍보팀에서 언론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김채현입니다.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차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100주년 관련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메시지와 활동을 외부에 잘 전달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보도 자료 작성이나 홍보가 아니라, 100년이라는 유산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남겼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의미'를 담아내는 일이에요. 역사와 철학을 전하는 과정은 매 순간 공부의 연속이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크고 보람도 커요.

'크리에이티브 전략' 과목의 힘!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수업은 '크리에이티브 전략' 과목이에요. 리서치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메시지를 기획했던 경험이 지금의 업무에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슈 대응이나 기업 이미지 전달을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거든요. '어떤 가치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학교에서 쌓은 사고력과 표현력이 정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사람 중심 기업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기업입니다. 팀원 간의 존중, 배려, 신뢰가 일의 기반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도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낸 문화구나' 싶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보팀이라는 자리도 저와 잘 맞아요. 매일 기사와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기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교육 지원도 많이 해주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점은 유한대학교에서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도전이 아름다운 유한인!

유한대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교예요. 저는 해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문화와 생각을 경험했고, 아직도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큰 자산이 돼요. 열심히 해봤던 기억이 자신을 더 밀어주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멋진 일이에요. 응원합니다!

반짝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전문가

전문성을 향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피부샵과 로컬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좀 더 전문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피부과에서 의료진과 함께 환자분들의 치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주된 업무는 여드름 압출이나 진정 관리처럼 치료 전후에 필요한 보조적인 관리입니다. 외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매일 꼼꼼하게 관리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론부터 실천까지, 유한 DNA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피부 이론은 물론이고, 다양한 피부 상태를 직접 실습하며 경험했던 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니다. 특히 화장품 조제 수업에서 성분별 기능을 공부했던 것이 지금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예민한 피부나 시술 후 피부처럼 조심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는 성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위생 관리나 테크닉 같은 기본기도 학교에서 많이 다졌기 때문에 실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뻘 몰랐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하나 연결된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회복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단순히 '피부를 관리한다'는 것보다 훨씬 커요.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피부염처럼 민감한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말 한마디, 손길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거든요. 몇 번의 관리 후 피부가 좋아졌다고 감사 인사를 해주실 때면 마음이 쩌해요. '내가 누군가의 회복 여정을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

지금 병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협업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피부과 의료진,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환자분의 상태를 공유하고, 가장 적절한 관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많아요. 그 덕분에 단순한 관리 기술을 넘어서, 전문적인 시야와 사고방식을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실무 능력도 키워지고 있고요. 계속 배워가며 성장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이 참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만의 방향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는 피부를 넘어,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 일을 하며 저는 기술 그 이상을 고민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더 깊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은 걷는 사람의 것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너무 많은 걱정으로 자신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방향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내딛고 나니 조금씩 길이 보이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방향이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해보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후회가 아닌 성장으로 채워가길 응원할게요.

김채현

유한양행 홍보팀 사원
광고미디어 전공
2025년 졸업

유한양행

권예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피부관리사
뷰티화장품 전공
2023년 졸업

CAU

서수현

셀트리온 배양팀 사원
유한생명바이오 전공
2024년 졸업
 셀트리온 제약
CELLTRION

작은 세포 하나가 지킬 수 있는 생명

작은 세포 하나가 지킬 수 있는 생명

저는 2024년 DS 부분 수시 채용을 통해 셀트리온에 입사했고, 지금은 특정 세포주를 플라스크부터 대량 생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저는 그 첫 단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배양된 세포는 결국 환자에게 전달되는 치료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매 순간 '이 작은 생명들이 누군가의 삶에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만큼 성과에 대한 보람도 큼니다.

실무로 이어지는 배움의 연결고리

유한대학교의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세포 배양 실습과 단백질 분리·정제 실습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인 세포 기반 생산 공정과 단백질 정제의 원리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GMP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하며, 바이오 의약품 제조 현장에서 요구되는 GMP 기반의 실무 역량과 품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경험은 현재 실무에서의 배양 공정 이해, 장비 운용, GMP 준수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협업으로 움직이는 셀트리온의 조직문화

셀트리온에서는 수많은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며 일합니다. 특히 배양 공정은 공정 간 연계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팀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죠. 실수 하나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느낌, 그게 셀트리온의 강점이지요. 이 일을 하며 저는 제 커리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넘어서, 언젠가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스템을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유한대학교에서 쌓은 기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셀트리온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미래

대학교 생활을 돌이켜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다녔습니다.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기회를 찾아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유한대학교 후배님들도 주어진 환경에 머무르지 말고, 직접 기회를 찾아 나서며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기회

디자인을 입히는 사람, 가치를 디자인하는 일

안다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스토리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단순히 '입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가 담고 있는 '가치'를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는 시즌별로 진행이 되는데 시즌별로 기획안이 마련되면 '안다르'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트렌드와 기능성, 계절감 등을 고려하여 컬러나 소재를 매칭하고 선별 작업을 거쳐 샘플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옷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정안을 거쳐 최종적인 디자인과 자재 매칭이 이루어지고 샘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 과정이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고 재밌는 작업입니다.

전공심화과정이 가져다준 기회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는 저의 취업과 실무 적응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3년제지만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 지원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3D CAD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 교육이 잘 갖춰져 있어, 도식화 작업 등에서 빠른 작업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과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도 실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교수님의 인턴 연계 추천을 통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한대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협업,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책임감

지금 일하는 환경에서는 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혼자만의 감각보다는, 다양한 부서와 조율하고, 브랜드 전체의 방향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유한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열린 사고를 배울 수 있었고 그게 지금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다르는 '사람을 위한 활동복'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진 브랜드예요. 저는 단순히 예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철학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누군가가 입고, 그 사람의 하루가 더 편안해진다면,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차이

디자인은 단순히 감각이나 재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매주 다양한 형태의 물에 들어 트렌드를 살피고, 자료를 정리해 나만의 아카이브를 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부

담스러웠지만, 그 노력이 지금은 저만의 루틴이 되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스스로 훈련해 보세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의 스타일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꾸준히 쌓은 작은 습관들이 결국 실력을 만듭니다.

김재익

안다르 디자인팀 사원
패션디자인 전공
2020년 졸업


글로벌 전공직무연수

도쿄, 방콕, 후쿠오카, 호주까지

진짜 Global한 YUHAN SPIRIT!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또 있을까?

유한대학교는 해외 직무 현장에서 배우는 글로벌 전공직무연수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태국 방콕, 호주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에서

전공 관련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실력을 쌓고,

현지 언어와 다양한 국적의 친구까지 얻는 일석이조 경험!

현장에서 성장한 유한대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회복지학과
in 일본 후쿠오카

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글로벌 전공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실천적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연수 개요 ★

연수 국가: 일본 후쿠오카

연수 기간: 2025년 6월 24일 ~ 29일(5박 6일)

연수 기관:

- 후쿠오카 시민복지프라자 개호실습보급센터
- 호쿠보쿠칸
- 후쿠오카 복지서비스협회
- 후쿠오카 사회복지협의회
- 치매프렌들리센터
- 일본경제대학
- 이온슈퍼즈 후쿠오카점

★ 주요 활동

- 돌봄용품 실습 체험
- 노숙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현장 견학
- 지역 맞춤형·세대 통합형 서비스 사례 학습
- 치매 친화 환경 및 IT 기반 솔루션 체험
- 원헬스 개념 교육(인간·동물·환경 통합 건강)
- 복지용품의 상업공간 내 통합 진열 방식 사례 학습

★ 주요 성과

- 선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례를 이해하고 국제적 비교 관점을 확보
- 세대 통합형·치매 친화적 서비스 현장을 경험하며 실천 역량 강화
- 인간·동물·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 관점의 복지 이해 습득
- 일본형 노숙인 지원 정책 및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이해 제고
- 상업공간과 복지의 접목 사례를 배우며 창의적 서비스 기획력 향상

후쿠오카

복지용구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

@후쿠오카 시민복지프라자 개호실습보급센터

센터에서 직접 보조기구를 체험하면서 단순히 편의만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세심한 고민이 담긴 도구라는 것을 느꼈어요. 복지용구 하나하나에 사용자의 움직임과 심리까지 고려한 설계가 녹아 있었고, 실제 주거환경을 재현한 '안심주택모델'에서는 고령자의 삶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기술과 장비가 발전하는 만큼, 이를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하려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후쿠오카에서 마주한 복지의 새로운 얼굴

이번 연수의 핵심은 일본경제대학에서 접한 '원헬스(One Health)' 개념이었어요. 인간의 건강이 동물과 환경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생각은, 사회복지가 결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죠.

복지는 돌봄을 넘어,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는 실천입니다. 앞으로는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을 넘어, 환경과 동물까지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를 고민하는 유한대학교 출신의 특별한 사회복지사를 꿈꿔보겠습니다!

아이와 노인이 한 공간에서: 접근부터 다른 복지서비스

@호쿠보쿠칸과 후쿠오카시 복지서비스협회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호쿠보쿠칸의 접근 방식, 그리고 세대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복지서비스협회의 철학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노인과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배우고 교감하는 모습은 한국의 연령별 분리된 복지 시설과는 많이 달랐고,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AR 기술까지 접목된 복지

@사회복지협의회와 치매프렌들리센터

치매프렌들리센터의 AR 체험은 치매 환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치매 친화 디자인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환경이라 감동적이라까지 했어요. 후쿠오카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 주도의 복지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의 참여가 복지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Yuhan in Bangkok



★연수 개요★

연수 국가: 태국 방콕
연수 기간: 2025년 6월 3일 ~ 7일(4박 5일)
연수 기관:
- 타이항공 훈련센터
- Dhurakij Pundit University 항공학과

★주요 활동

- 항공기 기종별 Door Training 실습(A330, A320, B777, B747)
- 슬라이드 비상탈출 및 화재 진압 훈련
- 기내식·음료 서비스 실습 및 이미지메이킹 교육
- 비상착수 훈련(수상 생존 훈련)
- A320 항공기 모의조종 체험

★주요 성과

- 항공기별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실습하며 실천적 역량을 강화
- 다문화 환경에서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매너에 대한 이해를 확대
- 현장 중심의 실무형 직무교육 경험으로 자신감을 향상
- 글로벌 항공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영어 기반 실전 대응 연습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와 언어적 자신감을 강화



항공서비스학과 in 태국 방콕

유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전공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항공 현장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역량을 실습을 통해 직접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현장 적응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비행기 실물 훈련에 메이크업 클래스까지! @타이항공 훈련센터

타이항공 훈련센터에서는 실제 항공기 출입문을 다뤄보며 기종마다 문 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비상탈출 슬라이드 실습에서는 승객과 승무원이 마주하는 시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도 느꼈고요. 화재 진압 훈련에선 실제 소화기를 작동하며 불을 끄는 연습도 했는데, 생각보다 무게감도 있고, 긴장감이 엄청났어요. 단순한 '서비스직'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전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들었어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하나하나가 직업의 일부분이라는 걸 새롭게 느꼈고, 유니폼을 입고 서비스 실습에 들어가니 마음가짐까지 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시뮬레이터도 체험해보고, 조종사의 시선으로 훈련을 지켜보면서 승무원도 항공기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상 착수 훈련은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 신호를 보내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OMG, 조종석 시뮬레이터까지? @Dhurakij Pundit University

Dhurakij Pundit University에서는 항공기 모형(Mock-up) 견학, 기내 서비스 실습, 심지어 A320 시뮬레이터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시뮬레이터 안에서 조종석 구조를 직접 보고, 조종사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시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승무원도 조종사와 협력해야 하는 만큼, 항공기의 운항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제선 기내 서비스 실습도 진행했는데, 단순히 음료를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동선과 매너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태국의 항공 교육 환경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

글로벌 경험으로 준비하는 차세대 승무원

이번 글로벌 전공직무연수는 흔히 보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하나하나 직접 해보는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과 실전 감각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국제적인 서비스 역량과 언어 실력을 더 키워, 국내를 넘어 해외 항공사에서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준비된 승무원이 되고 싶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유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in 일본 도쿄

유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전공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일본 항공업계의 서비스 철학과 공항 운영의 선진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도쿄



66



★ 연수 개요 ★

- 연수 국가: 일본 도쿄
- 연수 기간: 2025년 4월 10일 ~ 12일(2박 3일)
- 연수 기업체 및 기관:
 - 도이타여자단기대학
 - ANA 항공사 교육센터 (ANA Blue Base)
 - 하네다 국제공항 항공박물관

★ 주요 활동

- 도이타여자단기대학 항공서비스 세미나 참석
- 에어라인 서비스 모의 체험 및 특강 (항공서비스 마음가짐, 호스피탈리티 정신)
- ANA Blue Base 견학 및 현직 승무원과의 간담회
- 하네다 국제공항 항공박물관 전시 관람
- 신공항 자동화 시스템 견학

★ 주요 성과

- 일본 항공업계의 차별화된 서비스 철학인 '오모테나시' 정신을 직접 체험
- 고객 중심의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와 실무적 접근 방식을 이해
- 첨단 공항 운영 시스템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이해도 향상
- 현직 승무원과의 교류를 통해 항공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실무 준비 역량 강화
- 서비스 실무 경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프로그램 발전 방향을 모색



ANA



‘오모테나시’가 뭐야?

@도이타여자단기대학

도이타여자단기대학에서는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의 실제 수업에 참여해 일본 승무원 교육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모테나시’ 정신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단순히 친절한 응대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배려의 태도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사, 자세, 손의 위치, 눈 맞춤, 미소 등 세세한 동작 하나하나까지 실습하며, 서비스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처럼 철저하고 정제된 교육이 일본 항공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만드는 바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꿈에 그리던 ANA항공에서, 막연한 꿈이 현실로!

@ANA 항공사 교육센터

ANA 항공사 교육센터를 견학하며 실제 기내 실습장에서 승무원분들의 훈련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고객 응대뿐 아니라 비상 상황 대비 훈련까지 생생하게 지켜보며, 승무원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아니라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특히 ‘나도 저런 훈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ABS 특강에서는 실제 승무원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진심이 담긴 소통과 신뢰의 태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었고, 저 역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과 항공산업 전체를 보는 시야

@하네다 국제공항과 항공박물관

하네다 제2공항에서는 실제 공항 운영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일본 공항의 질서, 청결, 직원들의 응대 태도 모두가 인상 깊었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보며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항공 과학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항공기와 항공사의 역사, 실제 조종석 체험 등을 하며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어요. 승무원의 역할만이 아니라 항공 전반의 흐름과 기술 발전까지 함께 바라보게 되는 시야가 생긴 것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스포츠재활전공 in 호주 브리즈번·골드코스트

유한대학교 스포츠재활전공 학생들은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4박 6일 동안
호주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서
글로벌 전공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호주 재활센터 및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 재활시스템을 경험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진로 스펙트럼을 확대하였다.



★ 연수 개요 ★

- 연수 국가: 호주 브리즈번·골드코스트
- 연수 시간: 2025년 7월 7일~12일(4박 6일)
- 연수 기관:
 - Pain Stop
 - 퀸즐랜드 대학교
 - 브리즈번 한인회 운동치료 실습
 - 그리피스 대학교
 - 사우스포트 헬스클리닉

★ 주요 활동

- 'GLA:D BACK' 오프라인 재활 프로그램
- 'Allied Health' 개념 학습
- 스포츠재활 전공자의 호주 진출 사례 공유
- 물리치료 실습실, 해부학 실습실 견학
- 척추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한 뇌파·신경신호 분석 기술 시연 관찰

★ 주요 성과

- 호주 재활시스템의 자율성과 환자 중심 치료 철학(GLA:D BACK 등) 체험
- Allied Health 개념을 통해 다학제 협업의 중요성과 해외 진출 요건 이해
- 해부학·물리치료·시뮬레이션 실습 환경 체험으로 실무 역량 및 응급 대응력 강화
- 뇌신경 기반 재활기술시연 관찰로 신경재활 분야 이해 확대
- 연직 전문가·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과 커리어 설계 방향 모색



스포츠재활, 이렇게 접근할 것!

@언더우드 헬스클리닉

직접 운동 처방과 기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포츠재활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정교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환자 개인의 생활 습관과 근골격 구조까지 고려하다니,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세심한 코칭이 담겨 있었고, 현장에서 실천되는 섬세한 피드백을 통해 운동재활 전문가가 갖춰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의사만이 전문가가 아니다, Allied Health

@Pain Stop 클리닉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환자의 회복을 돕는 체계인 Allied Health. 호주에서는 이 Allied Health 직종이 헬스케어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설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재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팀워크와 소통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Hello, Mr. Skeleton

@퀸즐랜드 대학교(Queensland University)

퀸즐랜드 대학교를 방문하며 물리치료 교육 환경과 실습 시스템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해부학 실습실에는 뼈와 장기 모형 등 시각적인 학습 도구가 잘 갖춰져 있었고, 다양한 실습 공간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실제 가정집 형태로 조성된 '시뮬레이션 하우스'였는데, 응급상황 대처 훈련을 현실과 가까운 환경에서 반복할 수 있어 실전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 헬스장과 시설도 매우 훌륭했는데, 학생들의 신체 건강까지 고려한 복지적 배려가 인상 깊었어요. 이론과 실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커리큘럼을 통해 물리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지 체감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한대 힐링스팟 모음 zip

“냥, 거기에 가면 진짜 힐링 된다냥?”

수업과 과제 사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
근데 알고 보면... 감성도 유용함도 만렙인 공간이었다고 하냐?
햇살 좋은 사잇길부터 숨겨진 유한인 아지트 웰니스센터,
맛있고 편한 다이닝존까지!
게다가 사랑스러운 나랑 같이 놀 수도 있다냥~.
이제부터 유한대 캠퍼스 곳곳,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스팟들을 하나씩 소개해줄고냥.
오늘은 바로, 우리의 '히터스팟'을 찾는 날!

나옹!



6호관 rooftop 애견카페



파고라 & 상상테라스

햇살도 딱, 벤치도 딱, 바람도 딱!
느긋하게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힐링도 되고,
사진 찍으면 인생샷 나온다냥.



5·6호관 사잇길

5·6호관 사잇길 & 6호관 루프탑 애견 카페
냥이랑 함께 하는 추천스팟 1위는!!
5호관과 6호관 사이 푸름푸름 사잇길에 있는 공간이랑
고급 리조트 같은 루프탑 반려동물 카페 최고다냥!



나눔의 숲 파고라



상상테라스

- 냥 포인트 : 햇살 좋은 날에도 비 오는 축축한 날에도 필수 인증샷 스팟!
- 추천 묘법 : 친구랑 수다 떨며 에너지 보충 or 혼자 이어폰 끼고 힐링 타임
- 유한냥 한마디 : "여기에만 있고 싶다냥♥"
- 위치 : 5·6호관 주변



뉴스퀘어

아침부터 향긋한 커피 향이 퍼지는,
큰 통창으로 예쁘게 펼쳐진 뷰까지 다 있는
유태인들의 아지트!
디지털존에서 영화를 즐길 수도 있고
조용히 앉아서 힐링하거나,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도 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

- 🐾 낭 포인트 : 대화용컵에 담아 마시는 향긋한 커피로 환경도 챙기냥~
- 🐾 추천 묘법 : 뷰 포인트에 앉아서 힐링 타임!
- 🐾 유태냥 한마디 : "혼자서도 오케이, 같이도 오케이인 공간아니냥♥"
- 🐾 위치 : 유일한기념관 4층



🐾 유일한기념관 5층



웰니스스테이션

진심, 여기가 유한대 맞다냥?
헬스장, 탁구장, 노래방,
인생네컷까지 한 자리에?!!
몸 풀고 노래 부르고 인증샷까지 가능한
멀티 힐링존! 모두 무료라는 거, 알았냥?
심쿵할 정도로 힐링 되는 마음 쉼터, 요즘 좀 지친다냥?
그런 날은 여기 와야 한다냥.
몸도 마음도 말랑해지는 마법 공간!
혼자 끄공 앓지 말고, 조용히 숨어들어 리셋해보라냥.

- 🐾 낭 포인트 : 운동 기구 + 힐링 프로그램 완비
- 🐾 추천 묘법 : 감정 정리하고 멘탈 리셋하거나 가볍게 몸풀기
- 🐾 유태냥 한마디 : "웰니스스테이션, 나만 알고 싶은 쉼터냥.♥"
- 🐾 위치 : 학생회관 4층



emart24



이마트24 다이닝존

출출한 유한대생들과 낭이들을 위한 진정한 '생존존'라면, 도시락, 간식부터
조별과제 미팅까지 다 되는 만능 캠퍼스 허브!
배도 채우고, 눈도 호강하는 유한대 필수 코스, 배고플 땐 여기로 오라냥~
깨끗하고 쾌적하고 친구들도 많고 무엇보다 먹을 게 진짜 많다냥~
전자레인지 돌리고 편하게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과제도 할 수 있는 똑똑한 공간!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옆에 나랑 내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온다는 사실!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너 오늘 하루 대박이다냥~

- 🐾 낭 포인트 : 널찍한 다이닝존 + 건물 옆 귀여운 낭이 쉼터 조합
- 🐾 추천 묘법 : 밥 먹으면서 회의하거나 수다 힐링 타임!
- 🐾 유태냥 한마디 : "밥 먹다 낭이랑 눈 마주쳤다... 이젠 운명인가냥?♥"
- 🐾 위치 : 5호관 1층



유한PICK 콘텐츠!

공부할 땐 귀에 **쏙**,
고민 있을 땐 마음에 **쿵!**

유한대 학생들이 직접 추천한
인사이드도 재미도 놓치지 않는
교양&라이프 채널들을 소개합니다.

교양&
라이프
채널



1

‘너진뚝 NJT BOOK’

철학·심리·인문 교양이
이렇게 **쏙쏙** 들어온다고?
감각적인 애니메이션
+ 몰입도 높은 성우 내레이션!

https://www.youtube.com/@NJT_BOOK

2

‘잘잘법 : 잘 믿고 잘 사는 법’

‘질문하는 믿음’,
삶의 고민을 교양 있게 풀어주는 콘텐츠
믿음, 가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야기

<https://www.youtube.com/@jaljal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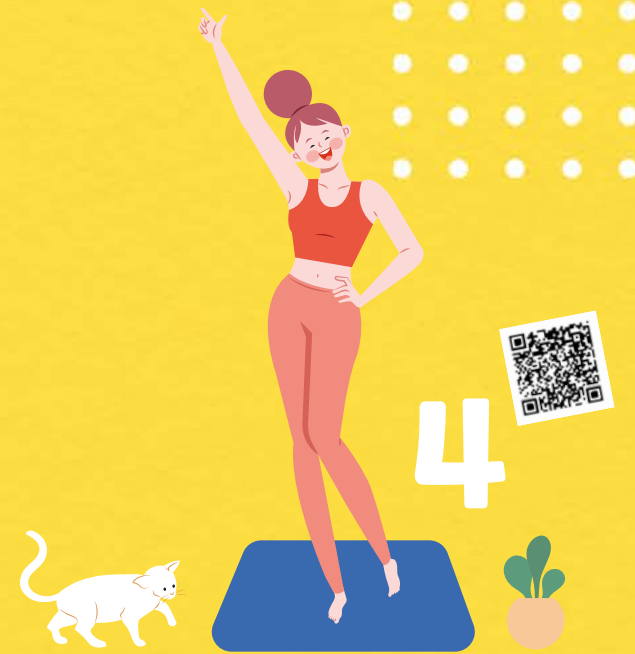


3

‘닥터프렌즈’

하루 한 번, 건강 상식 충전 완료!
의사 친구들이 들려주는
실생활 의학 정보

<https://www.youtube.com/@닥터프렌즈>



‘비타민신지니 VitaminJINY’

보기만 해도 따라 하고 싶어지는 밝은 에너지
홈트 초보도 가능한 **실천형 운동 채널**

<https://www.youtube.com/@vitaminjiny>

‘십이층’

5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
유쾌하게 풀어내기!

<https://www.youtube.com/@12%EC%B8%B5>



6

‘전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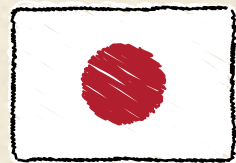
ootb스튜디오의
**전세계 모든 과를
리뷰하는 콘텐츠!**

<https://www.youtube.com/@ootb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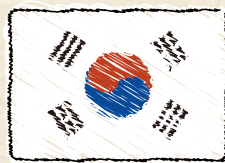
글로벌 체험 로그 세상을 무대로 경험을 확장하다

전공도 글로벌하게!

유한대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은 4개월간 해외에서 전공과 어학을 동시에 채기는 찐현장 경험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공별 맞춤 실습을 하고, 현지 적응까지 든든히 지원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日本経済大学
Japan University of Economics



일본경제대학 교환학생 **호제준**

すごい!

“
해외 경험, 무조건 해!
그냥 한번 부딪쳐봐!
”



일본, 나를 찾는 시간

복학 전에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을 지냈어요. 그땐 일만 하면서 보내느라 저를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저 자신을 성장시켜 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 추천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춤 시험 과제라니, 신선한 충격!

일본경제대학에서는 댄스, 음악 제작, 보이스 트레이닝 같은 예체능 수업을 주로 듣고 있어요. 특히 댄스 수업이 인상 깊었어요. 시험을 춤으로 보고, 많은 친구와 함께 움직이며 즐기는 수업이 처음엔 놀라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자연스럽게 동아리도 댄스를 하게 됐고, 1학기를 더 연장하게 된 계기도 이 수업 때문이에요.

틀림이 아님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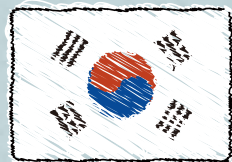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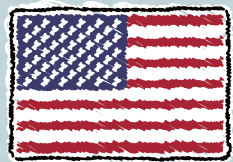
일본뿐 아니라 일본, 중국,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인도, 영국, 잉글랜드 등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문화 차이 속에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게 됐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덕분에 저 자신을 더 유연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패션 문화였어요.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줘요.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해외 경험, 무조건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땠어요. 저도 일본어 잘 못했어요. 그래도 해보니 확실히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생존력, 언어, 문화 이해력... 다 저를 더 넓게 만들어준 요소들이에요. 해외 경험은 단순히 공부만 아니라, 나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고민된다면? 그냥 한번 부딪쳐보세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한준호**

“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행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외국인 친구도 만드는
알찬 4개월이 될 거예요.”

There's nothin' you can't do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한준호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 패션과 문화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스케이트보드나 힙합 같은 하위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건 기회다' 싶었죠. 영어도 배우고, 전공 실습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그 첫 순간부터 낯설고 새로웠던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 뉴욕 공항의 공기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영상을 통해 보던 관광지를 지나며 '진짜 미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매리우드에 도착한 날은 8월이었지만 밤공기가 쌀쌀했고, 낯선 기숙사에 짐을 풀며 앞으로의 4개월이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을 키운 수업, 그리고 말 한마디

ESL 수업은 정말 특별했어요. 수동적으로 듣는 수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직접 말해야 했고, 매주 발표가 있었죠.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Speak with confidence."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나중에 실습이나 외부 활동에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기관에서의 실습, 진짜 세상을 배우다

저는 두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했어요. Dress for Success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 옷을 코디하고, 기부받은 의상 중에서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의 의미도 크고,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많이 배웠죠. YMCA에서는 마케팅 부서에서 포스터를 제작했는데요, 정해진 틀 없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하셔서 처음엔 부담이었지만, 나중엔 제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생각의 변화

학교 수업이나 실습 외에도, 저는 동아리를 통해 친구들을 사귀고 정말 다양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 가치관, 표현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서로 묻고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가 넓어졌습니다. 패션에서도, 전엔 시도하지 못하던 컬러 조합이나 스타일에도 도전해 보게 됐고요. 미국에서의 삶은 저의 '틀'을 깨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영어로 손님을 응대하면서 생긴 변화

처음에는 클라이언트를 영어로 응대하는 게 너무 떨렸어요. 문만 열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것까지 해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자신감'이었어요.

또 가고 싶은 경험,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번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마케팅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패션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언어 실력보다도 더 크게 얻은 건 바로 자신감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행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외국인 친구도 만드는 알찬 4개월이 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Are You Ready?

이들간의 YUHAN ON 라이브쇼!

“인생샷, 인생 축제, 인생 기억 — 모두 이들 안에 저장 완료”

눈부신 햇살 아래 열린 이번 버들대동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경험’ 그 자체!
‘ARE YOU READY?’ 슬로건 아래 학과·동아리·무대·패션·굿즈·인증샷까지,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 캠퍼스 곳곳을 채웠다.
캠퍼스 라이브 감성, 스포트라이트 아래 빛난 우리.

#오프닝부터_텐션업 #오늘의주인공은나야나

MC와 함께한 레크리에이션 타임, 축제의 시동을 걸다!

축제의 시작은 무조건 텐션업! 5월 29일 오후, 유한대학교 버들대동제의 첫 무대는 유쾌한 MC와 함께!
캠퍼스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마이크 소리와 참가자들의 웃음으로 몰입 완료!
소소하지만 열정적이었던 오프닝!

청량미 낭랑★

STAYC!!

버들대동제 ON AIR

#그날의_기억_소환 #우리부스_최고

전공의 재발견! 부스 탐방 타임

축제라고 다 같은 축제가 아니다. 유한대학교 버들대동제의 부스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단순한 전시? NO! 이건 진짜 실전 경험이었다. 각 학과와 동아리, 학교가 지원하는 캠페인 부스를 자신들의 전공과 활동을 짚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체험형으로 기획해 축제의 재미와 교육적 감동(?)을 동시에 잡았다. 유한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 교수님들과 총장님과 이사장님까지! 모두가 함께 즐겼던 유한 부스!! 어떤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 현장을 살펴보자!



#aka차은우? #닭은꿀찾기 : 방송연예전공
‘시가 찾아준 나의 닭은꿀은?’

‘닭은꿀 연예인 매창’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사람들을 줄 세운 부스! 얼굴을 스캔하면 시가 분석한 나의 연예인 닭은꿀을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이상형 캐릭터까지 추천해 주니 웃음과 사진이 끊이질 않았다. “차은우 닭은꿀이 나와서 친구들한테 바로 자랑했어요 ㅋㅋ”라는 현장 후기까지!

2

#핀전공_핀체험 : 작업치료과

‘작은 단추 하나,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였어!’

작업치료과는 단순한 전시 대신, 직접 손과 몸을 써보는 실습형 미션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손 떨림 유발 장비를 착용한 채 퍼즐 맞추기, 끈 묶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재활과 치료의 현실을 체험했다. 한 학생은 “작은 동작 하나도 이렇게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남겼다.



3

임호강_두뇌볼가동 : 호텔조리전공

‘입으로 즐기고 머리로 푸는 푸드게임’

조리과는 맛만 보는 시식 부스를 넘어서, 음식과 게임을 결합한 색다른 ‘미션형 시식 존’을 선보였다. 음식 퀴즈를 풀어야 시식을 할 수 있는 룰이라 참여자들은 머리로 써야 하고 입도 즐거웠다. “입으로 즐기고 머리로 푸는 부스였다”는 피드백은 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5

나도 예능PD #MC_데뷔각 : 방송영상전공**‘예능 PD, 오늘 나야 나’**

카메라와 마이크는 물론, 방송용 게임 세트까지 그대로 재현한 방송영상전공 부스는 말 그대로 ‘현장 체험형 예능 쇼’였다. 방문자들은 직접 방송 게임을 진행하고, 촬영 소품과 함께 포토타임까지! “나 예능 PD로 전공 바뀌어줬어요...”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몰입도였다.

#내일배움카드 #취업스펙UP :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훈련 체험존**“학생들이 요즘 원하는 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모 있는 기술’이에요.”**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국가 지원 정책을 퀴즈 형식으로 알리는 참여형 부스.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실질적인 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훈련 과정을 앞둔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고민까지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가 함께 취업을 응원하는 현장이라는 분위기가 유한대학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8

#축제도_안심 #데이트폭력_노노 : 부천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범죄예방 홍보관**“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예요.”**

유한대학교 버들대동제 한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부스가 있었다. 성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등 청소년을 위한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부스.

참여자들이 직접 퀴즈와 이벤트에 참여하며 경찰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션디자인 학과 공연 ‘Fashion + α’

학교 축제가 한창이던 오후, 아름다운 캠퍼스 화단 너머 설치된 무대에서는 캠퍼스 런웨이가 펼쳐졌다. 매해 놀라움을 주는 패션디자인 학과의 올해 패션쇼는 단연 축제의 하이라이트!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의 ‘버들대동제’ 메인 무대를 장식한 졸업 작품 패션쇼 ‘Fashion + α’는 영화, 음악, 기술 등 다양한 장르와 패션의 융합으로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기획부터 연출, 제작까지 모두 학생들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패션쇼는 유한대학교의 실용 중심 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학생들의 열정과 협업이 만든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캠퍼스런웨이 #쇼미더워킹**#건강챙기고_굿즈도챙기고 : 유한 건강생활 체험존****“레몬즙 100% 시음해보셨어요?”**

요즘 트렌드 키워드는 바로 ‘건강’이다. 유한건강생활이 운영한 체험존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제공됐다. 깔끔한 전시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방문객들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며 일상 속 건강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부스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시음-경품 SNS 팔로우 이벤트까지 종합 마케팅 부스를 방불케 했다. 놀러 와서 건강도 챙기고 그야말로 럭키비키!

#친환경축제 #유한대ESG : 캠퍼스컵크루 캠페인**“친환경? 불편해도 해야죠. 그게 미래니까요.”**

경기도의 ‘일회용 컵 없는 경기’ 사업에 참여한 친환경 서포터즈 부스.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QR 설문 참여 시 교내 카페 쿠폰을 증정하며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했다. 사회복지학과 심화과정 학생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의식있는 유한인들의 의식있는 축제!

4

공연의 밤 with 호미들 & STAYC

밤이 되자 분위기는 뮤직 페스티벌로 전환!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자, 스탠딩 구역은 환호와 점프로 가득 찼다. 이젠 환상의 뮤직 페스티벌 현장! 역시! 호미들의 첫 비트가 울려 퍼지며 시작된 뜨거운 무대는 유한인들과 관객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이어진 STAYC의 무대에서는 땅이 흔들릴 것처럼 모두가 점프를 하며 그 열기에 몸을 맡겼다.

동아리 공연 - MAMA 전야제를 방불케 한 무대 장악력

버들대동제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바로 유한대 동아리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든 무대였다. 댄스 동아리 ‘더 크루’는 무대를 압도했고, 힙한 동아리 ‘틸라이트’는 랩과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오랜 연습과 팀워크가 빛어낸 무대였기에 관객들의 환호와 때창은 더욱 뜨거웠다. “진짜 우리 학교 맞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성도 높은 무대에 모두가 감동한 순간이었다.

엔딩 요정, 린 권은비!

유한 버들대동제에 여신이 떴다! 드디어 마지막 무대. 씬머린 권은비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캠퍼스의 공기가 달라졌다. 관객들의 시선은 모두 무대로 쏠렸고, “야, 셀카 그만 찍어! ‘청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대 위 권은비와 무대 아래 유한대 학생들이 하나 되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손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꿈같은 엔딩을 완성시켰다. 열정과 에너지, 때창과 환호로 가득했던 순간. 그날 밤, 무대는 곧 청춘 그 자체였다.

Hop to the Beat! 호미들과 함께!**#공연의밤 #스탠딩존_점프력측정중****청춘은 바로 지금! #aka_청바지!**

학과와 동아리, 그리고 청춘이 함께 만든 유한대학교의 버들대동제. 캠퍼스 곳곳에 펼쳐진 부스와 무대, 나무 그늘 아래 웃음꽃을 피운 대화들, 음악과 음식이 어우러진 잔잔한 순간들까지. 이 축제는 우리의 청춘을 찬란하게 물들였고, 그 하루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무를 것이다.

버들대동제에!~**여신강림 권은비!**

세상과 연결되는 유한의 이야기

YUHAN NOW

캠퍼스 브리핑

유한대학교, 경기도 '라이즈 사업' 선정 부천시 유관기관과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MOU 체결



유한대학교는 경기도 '라이즈(RISE)' 사업의 수행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 보건소, 부천시의료관광협의체, 부천시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 및 상호 지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취·창업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한대학교는 산학협력 거점형 대학으로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용적 교육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영 총장, 제8대 유한대학교 총장 취임 "변화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이룰 것"



유한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장은영 총장이 공식 취임했다. 장 총장은 취임사에서 '미래형 실용 교육 혁신대학'을 대학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변화의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열린 교육' 확대를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한대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디지털 전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장 총장은 "지속 가능한 대학 운영을 위해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한대학교-유한건강생활, 산학협력 MOU 체결 및 '제1회 이너플로라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유한대학교와 유한건강생활이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기획한 '제1회 이너플로라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인재 양성 및 실질적 경험 제공을 핵심으로,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전은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건강 브랜드 '이너플로라'를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영상 콘텐츠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방송영상전공 이신지, 이민지 학생이 수상했으며, 창의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우수 인재로 주목받았다. 양 기관은 향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유한대학교, 파라타항공과 협약 국내 최초 A320·A330 훈련시설 갖춘 실무형 항공교육 본격화



유한대학교가 파라타항공과의 협약을 통해 항공서비스 분야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이번 협약으로 유한대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A320과 A330 기종의 훈련시설을 모두 구축하며 실전 같은 훈련 환경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산업 수요에 맞춘 커리큘럼을 통해 현장 적응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실무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항공서비스 분야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대는 앞으로도 항공·관광 산업과 연계한 고도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유한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전북 왕갈비탕 특식 제공 학생 건강과 행복을 위한 착한 식탁, 올해도 계속된다

유한대학교가 2025년에도 '천원의 아침밥' 특식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집중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공된 메뉴는 '전북 왕갈비탕'으로, 영양과 맛을 모두

갖춘 고급 식단이 천원에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유한대는 앞서 2024년에도 천원의 랍스터, 고기페스타 등 파격적인 특식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 역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번 특식은 단순한 급식을 넘어 '학생 복지형 프로젝트'로서, 식사 만족도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생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식단을 기획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한대학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최고등급 '우수' 달성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사업설명회 성료



유한대학교가 '202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이를 기념한 성과공유회와 2025년 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고교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고 인증서도 수여됐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지원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유한대는 고교생 대상 진로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디자인과·보건복지학과, 전공심화 S등급 획득 전공 교육의 내실화, 혁신 성과로 이어지다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와 보건복지학과가 전공심화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을 받았다. 실무 중심의 교육 혁신과 학습 성과 향상이 주된 배경이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취업 연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한대는 전공심화 모델을 다른 학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 품질 향상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한대, 워싱턴DC 글로벌 전공직무연수 성료 한·미 대학생 교류 통해 실무역량 강화



유한대학교 재학생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 전공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지 기업 탐방과 인턴십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실무 역량을 키웠다. 이번 연수는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소통 능력과 직무 감각 향상에 기여했다. 학생들은 생생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넓혔다. 유한대는 앞으로도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한대학교,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진행



유한대학교가 ESG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연탄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왔다. 환경과 사회를 아우른 따뜻한 실천으로 의미를 더했다. 유한대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한대학교,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본격 추진, 지역 상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교수·학생이 함께 실무 참여

유한대학교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성화 대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NS 마케팅, 온라인 상점 구축 등 실무 교육을 운영 중이다. 교수진과 학생이 함께 참여해 실제 점포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역 밀착형 교육 모델로 호평받고 있다. 유한대는 산학연계형 실천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캠퍼스 브리핑

유한대학교 재학생, 전국 주요 대회서 '장관상' 잇달아 수상
예술·창업·공학 분야 전방위 활약



유한대학교 재학생들이 2024~2025년 다양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방송문예창작전공 학생들은 '2025 국제창업기능대회 방송콘텐츠부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고, 전자공학전공 팀은 'LINC3.0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2024 한·일 대학생 연수 수기 공모전'에서는 교육부장관상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제33회 젊은연극제에서는 3관왕(젊은연기상, 젊은연출상, 크리에이티브 퍼포먼스상)을 차지하며 창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다양한 전공에서 이룬 성과는 유한대의 실용 교육 역량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유한 네트워크 유한 패밀리 그룹 주요 뉴스

유한양행, 창립 99주년 기념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



유한양행이 창립 9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100년 기업'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진출을 향한 전략이 공유됐다. 유한양행은 R&D 혁신과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유일한 박사의 창립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유한양행, '렉라자' 글로벌 진출 박차
R&D 재투자로 글로벌 제약사 도약 시동



유한양행이 개발한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허가를 받은 비소세포암 치료제 '렉라자'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영국, 캐나다, 일본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고 중국에서는 품목 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혁신적인 신약 수익을 R&D에 재투자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꾀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한재단, 2025년 대학생 장학금 11억 원 수여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인재 후원 정신



유한재단이 2025년 대학생 장학금으로 총 11억 원을 141명에게 수여했다. 유한재단은 1970년 설립 이래, 매년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고 이는 유일한 박사의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 정신을 실천한 결과로 교육 공헌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유한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장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한건강생활, 중국 COFCO 자회사와
건강기능식품 단독 개발 및 수출 계약 체결



유한건강생활이 중국 국영기업 COFCO의 자회사와 건강기능식품 단독 개발 및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첫 공식 공급 계약 체결 후,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중국 런칭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내 프리미엄 건강식품 5종을 추가로 공급하고 현지 수요를 반영한 신제품 공동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즐기는
나타운미래

2026학년도 유한대학교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안내

● 수시1차 : 2025.09.08.(월) ~ 09.30.(화)24시 ● 수시2차 : 2025.11.07.(금) ~ 11.21.(금)24시 ● 정시 : 2025.12.29.(월) ~ 2026.01.14.(수)24시

학부	학과명	학제	4년제 학사 과정	입학 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일반고	특성화고	연계교육	일반고	특성화고	
공학부	자유전공학과	2년		45	27	7		7	3	1
	기계공학전공	3년	◎	50	25	12	5	5	2	1
	소방설비안전전공	3년	◎	30	16	3	6	3	1	1
	전기공학전공	2년		60	31	14	6	6	2	1
	전자공학전공	2년		25	10	7		6	1	1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3년	◎	50	34	6	2	6	1	1
	게임콘텐츠전공	3년	◎	50	31	9		7	2	1
	인공지능전공	3년	◎	25	14	2	2	5	1	1
	산업디자인전공	3년	◎	40	20	10	3	5	1	1
디자인 문화 학부	시각디자인전공	3년	◎	65	38	16		8	2	1
	패션디자인전공	3년	◎	65	44	11	1	6	2	1
	실내건축전공	3년	◎	65	43	10	4	5	2	1
	광고미디어전공	3년		35	24	6		3	1	1
	방송영상전공	3년		60	40	13		5	1	1
	애니메이션웹툰전공	3년		65	41	11	1	8	3	1
	방송문예창작전공	3년		40	29	6		3	1	1
	방송연예전공 ★	3년		35	24	6		3	1	1
	식품영양학과	3년		30	20	5		3	1	1
건강 보건 학부	보건의료행정학과	3년	◎	70	49	10		8	2	1
	작업치료과	3년		23	16	2		3	1	1
	반려동물보건학과	3년		25	17	3		3	1	1
	응급구조과	3년		50	33	7		7	2	1
	치위생과 신설	3년		25	16	3		4	1	1
	유한바이오제약전공	3년	◎	60	39	7	2	10	1	1
	유한생명화학전공	3년	◎	25	15	2	1	5	1	1
	피부메이크업전공	2년		35	21	8		4	1	1
	뷰티화장품전공	2년		25	13	6	1	3	1	1
건강 생활 학부	사회복지전공	3년	◎	55	37	11		4	2	1
	스포츠재활전공	3년		70	42	15		10	2	1
	반려동물산업전공	3년		50	32	10		5	2	1
	호텔조리전공	2년		63	34	14	5	7	2	1
	카페베이커리전공	2년		60	35	14	2	6	2	1
	호텔관광전공	2년		50	28	10	4	6	1	1
	일본비즈니스전공	2년		50	33	8	1	5	2	1
	경영정보전공	2년		35	23	5		5	1	1
	세무회계전공	2년		30	15	9		4	1	1
비즈니스 학부	항공서비스학과★	2년		55	45	4		4	1	1
	합 계			1,691	1,054	302	46	197	55	37

※ 모집시기별 1개 학과만 지원 가능(단, 정시 때는 2개 학과까지 복수지원 가능)

※ ◎표는 4년제 학사학위과정 연계학과(단, 기계, 소방은 2년 과정임)

※ ★표는 면접학과(수시1차 일반고/특성화고 전형만 해당) : 방송연예전공, 항공서비스학과

※ 수시 정원 내 미충원 인원은 차수(1, 2차), 전형(일반고, 특성화고) 간 교차 충원 가능,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 수시 정원 내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전형의 미충원 인원은 수시2차(일반고, 특성화고)로 이월하여 모집

※ 자유전공학과는 모든 학과로 100% 전공배정 가능(단,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반려동물보건학과는 여석에 한하여 배정 가능하며, 희망학과가 방송연예전공, 항공서비스학과인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누군가 먼저 가야하는 길.

유한양행이
인류건강의 길을
앞서갑니다

유한이 가야 하는 길.

국민이 사랑하고, 국민과 함께 자란 기업 유한양행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정직과 성실의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지금의 유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합니다.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다가올 100년에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한양행

유한패밀리 기업



유한김벌리



유한회회



유한크로릭스

New Origin

유한건강생활